

2017~2018 상반기  
부산 출판사 신간도서

Bean  
2018-14

부산에서 만나는

책

들여다보기



2017~2018 상반기  
부산 출판사 신간도서

Bean  
2018-14

부산에서만의

책

들여다보기



## 부산 출판사

				
공공작소	너나드리	느림북	도서출판3	도서출판 도요
				
도서출판 두손컴	리딩소년	도서출판 무량수	북치는소녀	비온후
				
빨간집	산지니	도서출판 사인텔	서른세계의계단	도서출판 스토리팜
				
도서출판 신생	에리원	육일문화사	인디페이퍼	도서출판 작가마을
				
재난인연	도서출판 전망	참과학	책읽는저녁	도서출판 정육문화사
				
도서출판 푸름사	해광출판사	도서출판 해성	해피북미디어	호랑이출판사
				
호밀밭	소요-You			

## 2017~2018 상반기 부산 출판사 신간도서

책을 펴내면서 ... 004

시 ... 005

소설 및 에세이 ... 037

아동 ... 067

인문 사회 자연 ... 073

실용 ... 109

기타 ... 113

출판사 안내 ... 117

출판사별 신간도서 리스트 ... 124

부산문화재단 출판시리즈 안내 ... 130

부산문화재단 독서인문학 활성화 사업 안내 ... 131



## 『부산에서 만든 책 들여다보기』를 펴내면서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최근 출판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미와 지혜를 담은 책들을 출간하고 있는 부산 출판사의 도서를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소중한 도서 자료 아카이빙을 위해 본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에 등록된 출판사는 수백 곳이지만 2017년도와 2018년도 상반기에는 30여 곳의 출판사에서 300여 종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은 각 출판사의 협조를 받아 출판사별 신간도서 목록과 상세한 소개를 책자에 담고 시, 소설 및 에세이, 아동, 인문사회자연, 실용, 기타로 분류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책자 발간을 통해 부산 출판사들이 부산 시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출판사가 내놓는 다양한 책들은 부산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그것이 바로 부산문화재단이 꿈꾸는 '일상에 스미는 문화의 새 물결, 상상력 넘치는 해양문화 도시'를 만드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부산 출판사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책자에 수록되지 않은 부산 출판사의 경우 내년 제작 예정인 안내서에 실릴 수 있도록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부산문화재단 독서인문학 활성화 사업  
TEL. 051) 745-7284 E-mail. mia6751@bscf.or.kr





**슬로시티** 김종목 지음

우리 말의 향기와 가락을 품은 문장들은 시인의 풍경과 추억, 인생과 회포,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다. 평범한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시인의 감수성을 읽어 내려가며 오랜 시간 시적인 삶을 살아온 작가의 시간들을 더듬어볼 수 있다.

산지니 | 132쪽 | 12,000원 | 2018. 06.



**날개 돋다** 문인선 지음

전문 시낭송가로도 활동하는 문인선 시인의 시집. 문인선 시인의 시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움의 언어들이 빚어내는 평화로운 세계가 무엇인지를 가능케하는 질감을 갖고 있다. 가볍게 읊조리듯 하는 그녀의 시적 행간은 단순한 듯 명료하고 깔끔하다. 전체 시편을 읽다보면 시인의 시와 심성이 참 아름답다는 마음이 절로 일어난다.

작가마을 | 136쪽 | 10,000원 | 2017. 12.



**너럭바위 꽃잎편지** 반석초등학교 아이들 지음

반석 어린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일 년 동안 쓴 시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모아 엮은 책입니다. 어린이들의 시는 멋진 비유가 기발한 작품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생활을 진솔하게 표현해서 시 읽는 재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책에 자신의 글이 실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 속에 담긴 마음이 세상을 밝고 따스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도서출판 샤토텔 | 212쪽 | 10,000원 | 2017. 01.



**길이 열렸다** 이종민 지음

이종민에게 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도(道)의 개안이 그에게는 곧 시(詩)이다. 내달리는 구급차에게 길을 열어주는 마음, 그것을 그는 시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길을 열고자 그렇게 도학의 열의로 치열했으나보다. 길을 열어나가는 사람은 아픔을 감당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 지금 그가 품은 아픔은 또 다른 길로 접어드는 하나의 입사식(入社式)이 아닐까.

책읽는저녁 | 120쪽 | 9,000원 | 2018. 04.



**구룡산 고릴라** 신익요 지음

신익요 시인의 이번 시조집은 역사의 현장이나 시인 자신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선비들의 인생을 시조로 읊고 있다. 시인은 자신 앞에 바위 하나가 사람의 형상으로 돌 등짐을 지고 앉아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 길게 자란 턱수염, 물기 젖은 애잔한 눈빛에 취한 듯 멍청히 바라보는 성낙묘 등의 모습들을 묘사한다.

전망 | 144쪽 | 9,000원 | 2017. 08.



**그 날 이후** 노미미 지음

문단에 등단한 지 어언 10년. 긴 침묵을 깨고 시집 『그 날 이후』를 발간하기에는 선배 시인님들의 충고와 경험담 등에 힘을 얻어서이다. 내용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한 번쯤은 읽고 생각해주시기 바라면서 인사말을 대신한다.

두손컴 | 112쪽 | 7,000원 | 2017. 12.



### 우물 속에서 세상 보기 권미숙 지음

권미숙 시인 첫 시집. 서두르지 않고 깊은 바닥에서부터 자신의 시세계를 쌓아 온 내공이 이 시집에 담겨 있는 것이 보여 반갑고 기쁘다. 초산을 치르는 젊은 어머니의 설렘과 두려움, 사랑과 기쁨을 읽으면서, 이 시집을 내기까지 자신의 시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과 아픔이 숨김 없이 담겨 있음을 독자들이 제대로 보아 주기를 기대한다.

전망 | 152쪽 | 10,000원 | 2017. 12.



### 그림자를 읽는다 최인현 지음

시집 『그림자를 읽는다』는 시인이 밝아온 발자국임은 물론 시인이 본 세계의 모든 그림일 수도 있다. 혹은 시인이 설정한 새로운 그림자일 수도 있다. 시적 언어들이 단순한 듯하지만 그녀의 시 속에 내재된 인생의 철학을 발견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만큼 편편마다 삶의 언저리가 푸르게 잘 나타나 있다.

작가마을 | 96쪽 | 9,000원 | 2018. 05.



### 하양의 신비 선영자 지음

선영자 시인의 이번 시집은 '꽃'을 주제로 한 시들이 대부분이다. 시인은 그동안 펴낸 시집에서 다양한 사물에 대한 시를 써왔으나 꽃을 소재로 한 시들이 부족한 걸 알고 그동안 줄기차게 주변 풍경과 들녘의 꽃들을 찾아다니고 자료를 찾으며 집중도 높은 시를 써 발표했다. 그 결과물이 이번 시집 『하양의 신비』이다. 시인의 궁극적 관심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는 독자의 몫이다.

작가마을 | 152쪽 | 10,000원 | 2018. 05.



### 혹시 시인이십니까 신옥진 지음

신옥진 시인은 세상에 시인보다 미술전문인, 공간화랑 대표로 잘 알려진 분이다. 그러나 그는 엄연히 《심상》으로 등단한 시인이다. 이번 시집 『혹시 시인이십니까』는 그 특유의 익살과 촌철살인의 직설적 화법처럼 쓰여진 짧은 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의 시는 “형식이 낯설고 실험적”이며 “산승의 화두에 가깝다”(송유미)

작가마을 | 100쪽 | 7,000원 | 2018. 04.



### 자작나무 숲의 사유 김희진 지음

때만 자들이 햇빛 숲 어디쯤 모여 있을까. 까마귀 떼 울음소리로 심연 속으로 가라앉은 회한의 순간을 느끼지만, 그래도 살아 있음으로 하여 한 뼉 눈부신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다. 가슴에 못을 박듯 슬픔이 하얀 설원을 채우지만, 저 멀리 나의 별이 반짝이는 나라로 언젠가는 갈 수 있으리란 희망을 시인은 버리지 못한다.

전망 | 160쪽 | 9,000원 | 2017. 03.



### 유목의 피 김희정 지음

자신의 욕망을 이미지 없이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은 야만적인 일이다. 또한 “자신의 이미지를 욕망 없이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척 지루하다.”(아감벤, 『세속화 예찬』) 이미지와 욕망 사이에 김희정 시인의 시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의 시는 읽기가 매우 쉽다. 읽기가 쉽다고 해서 시의 무게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하층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시들이 이 시집에는 매우 많은 수를 이룬다.

신생 | 120쪽 | 9,000원 | 2017. 12.



**더 블루** 이운길 지음

그의 시가 독자의 한 사람인 나의 세속적 일상성을 치유하는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타의 우리 시대의 시가 갖지 못한 호쾌한 그 무엇이 깃들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보고 알기 위해, 그리고 그가 만든 풍경 속에서 우리 또한 영웅의 행로에 함께 동반한 승선자로 살기 위해, 우리는 그의 시집 속으로 들어가 얼마간 헤매어 보아야 하리라.

신생 | 112쪽 | 9,000원 | 2017. 06.



**바다를 떠난 섬** 천병태 지음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짧은 시인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 시시때때로 마주하는 유한한 삶의 끝자락에서 시인이 갈구하며 지새운 시간을 되돌아보는 내면은 상대적으로 더 젊은이들의 그것과는 질이 달라도 한참 다를 것이다. 대상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는 힘의 근원은 갈망하며 살아온 시절과 그 절박했던 시간을 “자기 위로”로 되돌아볼 수 있는 평정심에서 시작된다.

예린원 | 94쪽 | 10,000원 | 2017. 07.



**파미르의 밤** 청평 외 7인 지음/김태만 옮김

21세기 중국 최고 시인의 절창

장타오, 시투, 시환, 양샤오빈, 청핑, 쟁피, 장하오, 황찬란 등 21세기 중국 최고 시인 8명의 시를 편선하고 번역한 시집이다. 선별한 시인 8명은 1962년생 청핑에서부터 1971년생 장하오에 이르기까지 모두 60년대 이후 출생한 40대, 이른바 ‘류링호우(六零後)’ 시인들로서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지니 | 224쪽 | 15,000원 | 2017. 03.



**너럭바위 꽃잎편지-2** 반석초등학교 아이들 지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쓴 수많은 책을 읽고 있지만 내 작품이 실린 책이 출판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반석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해냈습니다. 『너럭바위 꽃잎편지2』는 전교생이 시를 1편씩 직접 쓰고 그림도 그려서 153편의 작품이 학년별로 묶여 실려 있습니다. 반석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솔직한 생각과 생활, 경험들이 자긍심과 함께 들어 있는 보물 중의 보물입니다.

도서출판 사인텔 | 192쪽 | 10,000원 | 2018. 01.



**산다화(유고집)** 박철석 지음

박철석의 시는 서정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법상으로 김춘수의 무의미 시에 대한 관심을 곁들이고 있다. 매우 단아하면서도 정확한 어조에 진력하고 있으면서도 역시 외면의식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그의 또 다른 장르인 비평이 문제의식에 입각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인식에 치중하는 바대로 그의 시 또한 보편타당한 이미지에 즐겨 매달린다. 이를테면 박정룡 시인이 취하는 비교적 와일드한 어법에는 감탄을 보내면서도 자신은 정작 그 초현실적인 경지에 들어서지 못한다. 항상 온건하고 평탄한 이미지 조형으로 우아한 시의 지평을 그려내는 편이다.

전망 | 128쪽 | 10,000원 | 2018. 01.



**가을 한 폭** 남경숙 지음

늦깎이로 시작활동을 한 남경숙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이번 시집 『가을 한 폭』은 주로 생활시편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사물의 존재와 사람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그리 쉬운 관찰이 아니다. 보기는 쉬워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워 담기에는 우리 인간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남경숙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그러한 관찰과 객관적 깨달음 등의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마을 | 112쪽 | 9,000원 | 2017. 12.



### 황령산 편지 김형길 지음

호우문학회 편집국장인 시인 김형길의 『천년의 침묵』에 이은 두 번째 시집. “산책을 좋아하는 나는 황령산하고 더욱 가까운 높이로 이사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방을 끝내 찾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새벽에 산책을 하려면 산책로 초입까지 도달하기가 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점점 게을러지기 일쑤다. 그래도 툼툼이 황령산을 찾아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두 번째의 책을 내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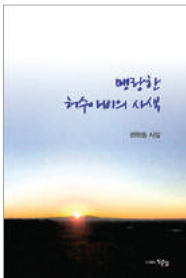
도서출판 샤인텔 | 248쪽 | 12,000원 | 2017. 11.



### 바람의 묘비명 박준홍 지음

전 부산MBC PD인 박준홍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 박준홍 시인은 다섯 번째 시집 『바람의 묘비명』에서 자연과 사물의 특징, 모양, 행동 등에 의미를 부여해 시인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1부 바람의 호미걸이, 2부 벵어리 뼈꾸기, 3부 악동들, 4부 도시왜가리’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출판 스토리팜 | 129쪽 | 11,000원 | 2018. 06.



### 맹랑한 허수아비의 사색 권혁동 지음

이 시집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새로운 관점에서 창작한 시이다. 순수한 서정을 바탕으로 쓴 시이므로 독자에게 쉽게 접근하여 시적 사회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부록에서 문학의 개념을 논술하여 처음 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에 관한 인식과 시 작법에 관한 이해를 높였다. 시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시이므로 독자에게 교훈과 정서의 순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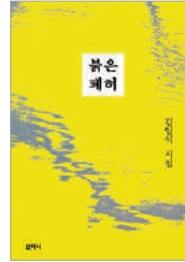
두손컴 | 128쪽 | 10,000원 | 2017. 07.



### 그리움을 품은 바다 이복심 지음

이복심 시인의 이번 시집은 ‘그리움’이 시적 주조이다. 그래서 제목도 『그리움을 품은 바다』이다. 이는 시인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모든 그리움들을 밖으로 표출한 때문이다. 그리움이 큰 시인은 그 내면의 사랑도 깊다. 시인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오로지 독자의 몫이다. 시집을 통해 시인의 그리움을 읽어내고 찾아가는 독자라면 1등 독자가 아닐 수 없다.

작가마을 | 112쪽 | 9,000원 | 2017. 11.



### 붉은 폐허 김일석 지음

김일석 시집

삶의 현장에서 시를 길어 올리는 김일석 시인의 일곱 번째 시집. 시인은 “30여 년의 투병, 아내가 쓰러진 지 6년, 찢긴한 생애, 그 우울의 행간을 위로하는 유일한 휴식이고 투쟁이었던 시”라고 말한다. 이번 시집에는 3부로 나눠 90여 편의 시를 실었으며, 1부에는 세월호 연작 12편이 실렸다.

산지니 | 180쪽 | 12,000원 | 2017. 09.



### 언제나 홀로 서는 자유 유기환 지음

자연과 생활을 접목 형상화시킨 서정시편. 이 시집은 시대적 상황을 면밀히 투시하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현재를 여과 없이 증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인식을 인간 본연의 중심에서 바라보며 하나의 명시적인 희망적 근거나 비전 없이 세월과 시대적 흐름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명징 짓고 있다.

두손컴 | 124쪽 | 12,000원 | 2017. 05.





**손의 온기** 윤연리 지음

윤연리 시집 『손의 온기』는 시집 전편이 온기가 느껴지는 시집이다. 시인의 따뜻한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다. 윤연리 시인은 이 세상에 부여된 많은 사람들과 소소한 풍경들을 존재라는 기본적인 생명성에 설정한 듯 동기부여를 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그 이면의 고요를 즐긴다. 마치 오랜 공부에 든 선승이나 철학자 같다. 중간 중간 깔끔한 사진들이 컬러로 들어가 있어 가독성이 좋다.  
작가마을 | 124쪽 | 12,000원 | 2018. 05.



**침류장편** 김광자 지음

2017년 국제펜문학상 수상 시집. 김광자 시인의 최근 작품들이 우수한 작품성으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마치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 농익은 작품성이 돋보이는 시집이다. “사족이 늘어지는 언어일랑 잘라 버렸!”이라고 선언하는 김광자 시인의 분명한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갈한 시편들이 담겨있다.  
작가마을 | 142쪽 | 10,000원 | 2017. 08.



**명상 이후 풍경으로 깃들다** 강기성 지음

소박하고 진솔한 심미적인 상징시편. 시인은 멀리서 중심보기로 의연한 삶의 근원을 가지려 한다. 여기서 보듯 우리는 시인의 절대적 목표와 가치관 안에서 자신의 본연의 희망을 각인시키려는 인생철학을 볼 수 있다. 어쩌면 이 시는 신앙적 잡언적 요소로 귀결되는 불가에서 우선하는 현대의 인문학을 미리 보는 듯하다.  
두손컴 | 124쪽 | 12,000원 | 2017. 12.



**그저** 김태우 지음

김태우 씨의 시를 읽으며 “그래, 그래” 마르셀 레몽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는 앎과 느낌의 방법이라서 김태우 씨의 시를 읽으면 우리는 우선은 시들이 명료해서 좋고 한편, 즐거움을 주어서 좋다. 더욱이 신앙적인 정신세계에 이르면 삶에 대한 명상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좋다.(허형만 시인 해설 중에서)  
두손컴 | 128쪽 | 13,000원 | 2017. 03.



**전원 속으로 풍경에 들다** 이경호 지음

자연과 삶을 접목 형상화시킨 유미적인 서정시편. 시 『전원 속으로 풍경에 들다』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노후의 삶으로 각광받는 전원생활에서 시작하는 인생 후반부의 삶과 일면 제2의 인생 출발로 꿈과 이상의 화두로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귀촌을 화자하고 있다. 시련과 고통, 수많은 난제를 극복하며 이룬 성과물인 은퇴로 평생의 꿈의 실현을 앞둔 시인의 반평생은 성공적 대단원을 앞머리에 둔 인간 승리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두손컴 | 124쪽 | 12,000원 | 2017. 06.



**꽃도 물빛을 낮가림 한다** 유병근 지음

한국에서 가장 깊이 있는 서정시를 쓰는 분 중의 한 분이 부산의 유병근 시인이다. 그만큼 그의 시는 깊이와 철학을 담고 있다. 이번 시집 표제 『꽃도 물빛을 낮가림 한다』에서 보듯 언어의 표현에 있어 언제나 창조와 사물의 관조를 통한 이면세계를 찾으려 하는 것이 특징이다. 허만하 시인과 함께 부산의 쌍두마차 시인의 새 시집을 보는 즐거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작가마을 | 104쪽 | 10,000원 | 2017. 07.



### 휴식 신화남 지음

시가 아프다  
몸시 아프다  
산고 없이는  
그 어떤 꽃도 필 수 없다  
아파야 시도 피고 꽃도 핀다  
(저자의 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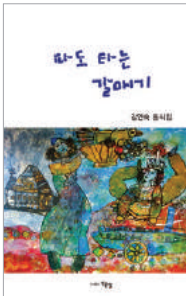
두손컴 | 60쪽 | 10,000원 | 2017. 01.



### 참, 붉다 주명숙 지음

그녀의 시에는 목은 된장과 같은 사랑이 흐른다. 거름이 되어서 썩어서 곰삭은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면 지극한 슬픔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실의 힘이 있기 마련이다. 그녀의 시는 직접 드러내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면서도 서서히 다가간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관조의 미학으로 부르지만, 동양문예미학에서는 섬세하면서도 은근한 섬농의 미학이라고 부른다. 그녀의 시에는 섬세하면서도 농후한, 그러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깊은 사랑의 힘이 흐른다.

신생 | 112쪽 | 9,000원 | 2017. 06.



### 파도 타는 갈매기 김연숙 지음

김연숙 시인이 등단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첫 동시집이다. 영남 여성백일장 산문부에서 은상을 받은 이후 1983년 『어린이문예』로 등단하고 시가 좋아 시와 함께 삶의 공간을 바다와 산으로 확대하며 지내왔다. 언제나 맑은 음성으로 시를 낭송하는 밝고 다정한 사람이다. 시를 재미로 읽는다? 그럴 때 김연숙 시인의 동시는 즐거움의 시학으로 읽혀야 한다.

두손컴 | 104쪽 | 10,000원 | 2017. 12.



### 숨 박솔 지음

박솔 시인의 시집 『숨』은 시인의 첫 시집이다. 한국에서 꼼꼼한 시 쓰기로 잘 알려진 시인의 첫 시집인 만큼 문단의 관심도가 높다. 첫 시집에는 그 시인의 민감한 촉수가 가장 잘 발달된 시어들 만날 수 있다. 이후 농익은 작품들이 탄생하겠지만, 시의 전체 품격은 연도가 쌓일수록 깊어질 수 있으나 첫 시집의 말터듬이만큼 차갑고 날카로울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유능한 시인의 첫 시집이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작가마을 | 136쪽 | 10,000원 | 2017. 12.



### 청산따라 인연 김만수 지음

여공 김만수 시인의 본래면목이라는 형체를 시로 승화시킨 이 작품은 바로 작가의 선정 수행 속 고뇌를 사바세계에 알리고자 나름대로의 도라는 완성품으로 산과 물, 하늘을 품어 스스로의 깨우침을 글로 옮긴 것이다. 우선 신선한 시풍에 모든 독자들의 심신이 안정되고 보리를 얻은 후 중생이 함께 여래의 본성에 가까워진다면 결국 해탈의 경지가 아닐까 한다.

두손컴 | 112쪽 | 10,000원 | 2018. 03.



### 집으로 가는 길 박복남 지음

기다림은 그것이 향하는 대상이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정서이다. 반면 그리움은 대상이 흐릿하거나 실재에서는 부재하여 어떤 막연함을 자아낸다. 그리움은 봄날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흐릿하지만,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정서이다. 그것은 우리 속 깊이 깃든 신비, 순수, 생명력, 맑은 영혼이 내뿜는 숨결이 아닐까?

두손컴 | 144쪽 | 10,000원 | 2018. 03.



### 또 다른 소설 배운정 지음

중학생이 펴낸 시집. 부산 해운대 장산중학교 3학년 학생이 2학년 때 쓴 시들만으로 시집을 엮었다. 배운정 학생은 '요산백일장 장원', '백연어서원 인문상' 수상을 하는 등 청소년의 시세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성숙된 시편들을 담고 있어 기성 시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현존하는 문학평론가가 공식적인 문예지에 배운정 시집 『또 다른 소설』에 대하여 장문의 서평을 쓸 정도로 단순 호기심이 아닌 문학적 역량이 쌓인 시집이다.

작가마을 | 116쪽 | 9,000원 | 2017. 07.



### 분홍의 그늘 김형업 지음

시인이 추구하는 세계가 현전(現前)하지 않는다 해도 시각 이전의 감각으로, 시각 이전에 청각으로 제 존재의 본래 모습은, 그리고 그에 대한 시인의 깨달음은 지속될 것이다. '소리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떠나간' 것하기에 시인의 몸은 그에 대한 감각(感官)을 활짝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김형업의 시편을 통해 일상성 속에서 포착되는 존재의 본래 감각을 어떻게 회복하고 삶의 생명성을 다시금 고양시킬 수 있는지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다.

신생 | 120쪽 | 9,000원 | 2017. 07.



### 아무리 잊으려 해도 노유정 지음

노유정의 시들은 여성시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시적 정취가 나약하고 부드럽다. 하지만 그 이면의 정서는 강렬하다. 잠결에도 밝혀오는 천년의 그리움을 찾는 시인의 정서가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던져준다. 더구나 시인은 미국 이민생활 속에서 보다 절실한 고향의 향수를 취득했다. 그 정서가 시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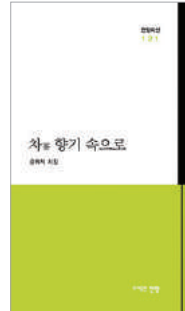
작가마을 | 102쪽 | 9,000원 | 2017. 07.



### 농부와 시인 배갑철 지음

섬세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배갑철 시인은 농부시인이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백도의 갈대밭, 서낙동강변의 고향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강물과 갈대밭과 흙 속에서 땀의 가치를 문학의 가치로 승화시키며 살고 있는 노력과 집념의 시인이다.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물, 손 흔드는 갈대잎, 한없이 날아오르는 철새, 햇살과 바람 속에서 익어가던 알곡들은 고단한 농부시인의 삶을 위로하며 격려한다.

두손컴 | 208쪽 | 12,000원 | 2018. 01.



### 차츰 향기 속으로 송차식 지음

인간의 삶이 운명이라는 존재의 문제 속으로 개입될 때 길은 삶을 암시하게 된다. 길에 관한 시는 수많은 시인에 의하여 그 발상법은 각기 다른 기교일지라도 그곳에 대해 느끼는 메양 그리움을 내포하며 가슴을 적시게 하는 공통점을 형성하면서 정서의 감염 현상을 유발한다. 송차식의 경우도 세계를 원점에서부터 넓혀가는 행위로 시작한다. 길은 존재자의 것으로 살아 있는 자가 만든다. 즉 바람은 하늘의 길을 만들고, 사람은 자연의 어느 곳이든 필요한 만큼의 길을 낸다. 그런데 길에서 선 사람은 돌아갈 곳, 즉 귀로의식으로서의 길을 찾는 법이다.

전망 | 152쪽 | 9,000원 | 2017. 12.



### 가문비나무 숲속으로 걸어갔을까 김선희 지음

내밀함의 시 쓰기로 잘 알려진 김선희 시인의 8번째 시집이다. 시인은 이 시집에서 '고흐의 해바라기'를 보는 듯 다소 몽환적인 느낌의 자연물들을 소재로 많이 다루고 있다. 특히 '꽃'을 소재로 한 미학적 시들로 인해 '생명의 근원'과 '존재의 탐사'라는 이중적 시적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고 있다.

작가마을 | 120쪽 | 9,000원 | 2017. 10.



**그 후로 오랫동안** 최봉섭 지음

늦게 시인으로 등단한 최봉섭 시인의 첫 시집이다. 최봉섭 시인은 컨테이너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또 직접 그 차를 운전하기도 한다. 어찌면 기계적 물질에 함몰되어 시적정취가 딱딱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시편들은 상당히 서정적이다. 그리고 애처롭다. 그만큼 최봉섭 시인의 심성이 부드러움은 반증이다. 시집 전편이 그러한 따뜻한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작가마을 | 108쪽 | 10,000원 | 2017. 09.



**아버지의 겨울** 이신정 지음

이신정의 시 세계는 정서와 초월의식을 적절히 조정하여 유지한다. '노을'이 보여주는 그 정열적 인식과 '르네 마그리트'가 제시하는 슈-레알리즘의 경지가 일면의 치우침이 없이 형상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음을 지우지 못한다. 이신정의 폭넓은 감각과 투철한 인식은 이 시집 한 권으로도 충분히 제 기능을 감당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깊은 정진을 기원한다.

전망 | 144쪽 | 9,000원 | 2017. 09.



**필연** 사라, 김노환 지음/사라 그림

밀양에서 수련원 '늘새의 집'을 운영하는 남편, 그 옆에서 '행랑채'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내. 50년을 함께 산 늙은 부부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의 시어를 엮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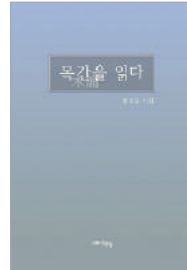
해피북미디어 | 212쪽 | 12,000원 | 2017. 04.



**목어 별곡** 박송희 지음

박송희 시인을 만난 건 어느 문학수업에서이다. 마치 전해린의 오래된 미래를 본 느낌이랄까. 잘 익은 여인에게서 적절히 배여든 향기가 청초했다. 살포시 내민 시편들에서도 여지없이 시인을 닮은 향기가 났다. 어디서 풍겨오는 것인지 못내 궁금하게 하던 그 향기는 인공에서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할까. 돌의 뉘새나 모시풀 삶을 때의 그런 곡진한 내음인 것을 인연이 깊어지면서 알게 되었다.

전망 | 168쪽 | 9,000원 | 2017. 05.



**목간(木簡)을 읽다** 한경동 지음

시인의 시를 읽으면 그의 세계 인식은 따뜻한 시선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이 시인이 세계를 따뜻한 눈-따뜻한 감성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시선은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이거나 반발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서 온다. (강남주 시인)

두손컴 | 136쪽 | 10,000원 | 2017. 06.



**미장센** 송진 지음

현재의 대한민국 시단에서 도시시(미래시)를 쓰는 시인들 중 가장 뛰어난 이미지의 창출자가 송진 시인이다. 이미 출간 전부터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은 바 있는 시인의 이번 시집 『미장센』은 실험적 시들과 요즘 보기 드문 장시까지 곁들여 264쪽의 소설집 분량이다. 하지만 송진 시인은 최근 3년간 쓴 1천여 편의 시들 중 겨우 골라낸 113편의 시만 실려냈다. 나머지는 모두 폐기 처분인 셈이다. 그만큼 시인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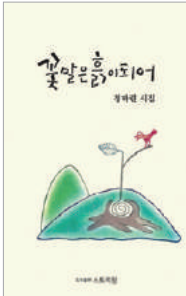
작가마을 | 244쪽 | 12,000원 | 2017. 12.



### 연분홍 아가서(雅歌書) 최원철 지음

최원철 시인의 『연분홍 아가서(雅歌書)』는 신앙의 깊은 향기를 품어낸 아름다운 연시인 동시에 신앙시(信仰詩)이기도 하다. 그는 기독교 가문에서 기독교 정신과 사상으로 자라 학자로 시인으로 성공한 이 시대의 지성인이다. 이제 황혼을 바라보는 후회 없는 눈동자로 삶을 뒤돌아보면서 솔로몬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발자취를 『연분홍 아가서(雅歌書)』로 하여금 자신의 숨겨졌던 내면의 세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두손컴 | 278쪽 | 15,000원 | 2018. 04.



### 꽃말은 흙이 되어 정마린 지음

부산시립극단 단원이자 저자 정마린의 첫 번째 시집. 오랜 기간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정마린의 글에 대한 갈망을 시를 통해 옮겨 놓았다. 연기를 하기전부터 써온 글들이 모여져 중년에 들어서 '시인정신 신인상', '현대시문학 신인상' 수상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시집 『꽃말은 흙이 되어』는 존재론적 자아라는 형이상학적 요소를 시 속에 잘 담아 장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 비판적 시선으로 풍자도 잘 담아낸다고 평가해 본다.

도서출판 스토리팜 | 142쪽 | 11,000원 | 2017. 11.



### 그대 있어 행복한 한세상 이병철 지음

사랑과 그리움을 대단원으로 승화시킨 서정시편. 이병철의 시는 사랑과 연을 적절히 배분 운용하여 마치 삶의 한 과정과 연대, 그리고 세월을 함께 보듯 선언하다. 표제시의 1연과 2연은 부부의 연으로 만남의 꿈과 시작을 진진한 묘미를, 3연과 4연은 살아가는 과정을 극명하게 대입시키는 한마음 한뜻과 이상적 세계를, 그리고 5연 6연은 한 사랑으로 일생을 함께 한 사연의 내용적 근거와 서로가 믿음과 신뢰로 하나가 되는 일념을 서로의 존경심으로 인내하고 고통하며 마침내 이룩한 인생의 대단원을 시의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두손컴 | 122쪽 | 12,000원 | 2017. 04.



### 맨발의 기억력 윤현주 지음

부박하고 비루한 현실 속에 처한 사회적 자아를 돌아보고 진실한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다. 유년과 고향을 주된 매개로 하여 때 묻지 않은 지난날의 순수한 경험들을 되새긴다.

산지니 | 149쪽 | 10,000원 | 2017. 07.



### 동행과 순리의 미학 현형수 지음

존재론의 탐구적 미학과 생활보기. 현실성의 이유가 표준이 되고 있는 다양한 삶의 면모와 형평성과 과정과 결론을 재론하며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하는 삶의 요체를 대단원으로 회자한 이 시는, 생활 중심의 가치관을 은연중 투영해 보며 현존의 입지를 비교분석한 주지적 관념시이다. 주제와 이미지를 세분하면서도 정연한 위치에 놓이는 시들이 결속력을 가지는 특징성을 지니는 어쩌면 기교를 부리지 않는 원론적인 시어들이 주정적 시들로 재탄생되고 있어 일미를 더하고 있다.

두손컴 | 124쪽 | 12,000원 | 2018. 04.



### 봄 꿈 조항미 지음

시인은 교단에서 만난 다양한 삶과 소중한 인연, 교육자의 눈에 비친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이번 시집을 꺼냈다. 이 시집은 넘치도록 충만하여 안주할 수 있는 현재에 대한 미련과 그토록 충분한 현실 속에서 무심코 툭툭 올라와 가슴을 흔들어놓는 존재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산지니 | 152쪽 | 10,000원 | 2017. 11.



### 하정(眞正) 김인권 지음

김인권(金寅權) 네 번째 시집은 100편의 시를 수록하였다. 1부, 2부는 사랑과 이별이 그리움을 바탕으로 쓰여졌고, 3부는 종교에 관한 시 '착각'에서 보이는 시인의 냉철한 페이스스(pathos)는, 평소 천 곳이 넘는 사찰 순례를 다니는 시인의 행로에 새 좌표라 여겨진다. 4부는 주로 여행 시로 구성되었으며 시인은 피지배층의 핍박과 수난에 따른 희생에,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5부는 되새김으로 기 발표작 중 부분 개작하여 수록하였다.

두손컴 | 128쪽 | 12,000원 | 2017. 09.



### 천사의 도시, 그리고 눈의 나라 양왕용 지음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는 부산대 명예교수 양왕용 시인의 시집. 이번 시집 『천사의 도시, 그리고 눈의 나라』는 가족과 함께 두어 달 미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소회의 이미지가 많다. 그러나 단순한 여행시편의 성격과는 다르다, 시인 특유의 관찰력과 화법들이 골고루 녹아나 있다.

작가마을 | 118쪽 | 12,000원 | 2017. 12.



### 업둥이 문명길 지음

제1부 마음에 느낌표 하나, 2부 수채화로 그린 마음, 3부 마음 곁에 두는 안부, 4부 시인의 바람, 5부 꽃의 대화를 엿듣다 등을 엮어 발표한 시집. 전국 모래톱 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청옥문학기획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첫 시집을 내며 불안함을, 두 번째 시집은 지원금을 받아 내게 되어 기쁨이 많다.”

청옥문학사 | 154쪽 | 10,000원 | 2017. 10.



### 나그네 정거장 최경식 지음

제1부 그리움, 2부 나그네 정거장, 3부 사색, 4부 연서리꽃, 5부 인연을 엮어 낸 시집. 부산에서 문학단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시인은 청옥문학협회를 운영하며 문예대학을 개설해서 무료로 시 창작을 가르치고 시조 강좌를 매주 여는 시인이자 시조시인이다. 그동안 6권을 냈다.

청옥문학사 | 121쪽 | 10,000원 | 2017. 12.



### 허무를 듣다 김순자 지음

김순자 시인의 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면과 형식이 더욱 단단해졌음을 알 수 있다. 살아 온 세월이 있고 간단명료하게 언어의 절약은 물론 풍부한 이미지의 활용과 상상력의 공간을 확대하고 기다림, 그리움 등 여성적 한의 세계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쉬운 시어의 선택으로 헤프지 않고 늘어지지 않는 시적 표현으로 생동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두손컴 | 128쪽 | 12,000원 | 2017. 10.



### 노을 울음 하태수 지음

충북 단양에서 농사를 짓는 하태수 시인의 첫 시집. 시인은 농촌에서의 정경을 시로 주로 읊었다. 그만큼 자연이 주는 이미지가 크다. 특히 서정시를 쓰는 시인에게 농촌은 시적 정서의 모태와도 같다. 그렇기에 이번 하태수 시인의 첫 시집 『노을 울음』의 시편들이 서경적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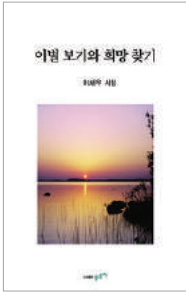
작가마을 | 136쪽 | 10,000원 | 2017. 12.



**꽃잎 일기** 최춘자 지음

제1부 고목을 보고, 2부 명개의 슬픔, 3부 섬이 되고 싶다, 4부 울 어머니, 5부 꽃잎일기로 묶은 시집. 5권의 시집을 발간한 시인 수필가의 신작 시집. 깊은 화단을 바라보며 쓴 시를 발표했다.

청옥문학사 | 131쪽 | 12,000원 | 2017. 03.



**이별 보기와 희망 찾기** 이채우 지음

극진한 부부애와 인간과 자연을 접목시킨 서정시편. 어느 순간 극명하게 예고도 없이 도출되는 행복과 불행을 어찌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와 처지의 원인과 편견을 실효성 있는 내용미와 주지로 환원시키고 있다. 못 잇을 사별한 그리움의 내자(內子)를 극명한 불행과 슬픔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자신을 추스르며 운명적 상황을 극복하는 안정미에 중점을 둔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시로 홀로서기를 하는 시인의 모습이 참으로 애잔하다.

푸름사 | 122쪽 | 12,000원 | 2018. 05.



**들꽃처럼 못별처럼** 최만공 지음

해운대 양운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최만공 시인의 퇴직기념시집이다. 이 시집의 표제 『들꽃처럼 못별처럼』은 최만공 시인이 첫 교사로 발령받아 답임을 하면서 내걸었던 학급급훈이다. 그만큼 초임교사의 순수함을 수십 년이 지나 퇴직을 앞두고도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시집의 표제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시집의 시 대다수가 학교생활 중에 틈틈이 쓴 것으로 아이들과 학교를 주제로 하였다.

작가마을 | 144쪽 | 10,000원 | 2018. 02.



**날마다 바람이 되다** 김흥규 지음

욕심 부리지 않고, 또한 현대인들이 흔히 그러하듯 속도와 허세에 편승하지 않는 삶을 시인은 갈망한다. 아니 그렇게 살고 있다. 그의 시가 한결같이 보여주는 자연 생명의 아름다움과 소박함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홀로 왔다가 홀로 돌아가는 생명의 자리를 바라다보면 자연이 펼치는 장엄한 파노라마야말로 인생의 스승이요 길잡이이지 않겠는가. 이를 시인은 벌써 터득했을 것이다. 그에게 인생은 마치 영근 밀알처럼 머리를 숙이면서 겸허하게 걸어가는 흙길이다.

전망 | 144쪽 | 9,000원 | 2017. 10.



**바늘 끝 여정** 변승연 지음

변승 연 시인은 늦깎이 시인이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시를 써 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는 삶의 물관을 타오르는 사유의 정점이 보인다. 시보다 먼저 사람의 생을 제대로 살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두 번째 시집을 내면서 두근거리는 시인의 마음처럼 순수한 그의 시세계가 독자들에게 푸근하게 전달될 것 같다.

작가마을 | 126쪽 | 12,000원 | 2018. 05.



**수정계단** 노정숙 지음

시는 시인에게 부가 가치를 안겨 주지 않는다. 시는 시인의 삶과 피와 숨결이다. 이러한 연유로 시인은 시 안에 사회와 세계, 자연을 유입한다. 노정숙 시에는 불순물이 거의 섞여 있지 않아 말의 순도가 높다. 말과 심미적 감성이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았다. 말의 숨결, 무늬가 미묘한 감성과 한뭉치처럼 어우러져 있다.

전망 | 128쪽 | 9,000원 | 2017. 11.



**희비** 최인숙 지음

시인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최인숙 시인의 시집.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애상과 정적인 고뇌를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만큼 시인의 번민이 크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적 모티브와 세계관이 표현의 다양성으로 인해 한층 승화된 서정의 깊이를 담아낸다. 마치 사진작가가 프리즘을 통해 빛을 담아내듯 부드러운 촉각의 반짝임이 있다.

작가마을 | 128쪽 | 10,000원 | 2017. 09.



**차갑고 깊은 발돋움으로** 부산시문학시인회 지음

시의 존재 이유가 날로 희미해지는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시를 쓰고 있다. 시인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좋은 시 한 구절이 널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먼 추억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드는 이 시대, 우리는 시와 시인의 무용론이라는 벽 앞에 설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용(無用)의 한 극은 대용(大用)으로 통한다는 역사의 순환과 필연을 믿으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에 희망과 생명을 불어넣는 장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푸름사 | 176쪽 | 8,000원 | 2017. 11.



**심정의 꽃** 임흥윤 지음

제1부 겨울나무, 2부 동행, 3부 새벽을 보며, 4부 운명을 엮어 발표한 시집. 심성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자 청옥문학에 활동하는 시인이다. 명상의 숲길을 거닐며 모은 시들을 엮었다.

청옥문학사 | 162쪽 | 10,000원 | 2017. 09.



**아름다운 외출** 박준덕 지음

한 시기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축복이자 은혜로움이다. 어떤 일이든 시작과 끝을 아우른다는 것은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헤아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자유로우면서도 제 갈 길을 잃지 않는 선택, 외출. 게다가 '아름다운' 외출. 시인이 만나는 세상, 그 세상이 그리는 관계를 규정하는 맥락으로 선택한 '아름다운 외출'은 무척 적절해 보인다. 풍경과 풍경 사이에 끼어드는 시적 화자의 미소가 세상 안과 밖의 연대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망 | 160쪽 | 10,000원 | 2017. 08.



**마음의 여백** 박연희 지음

화가이자 시인인 박연희의 시 작품을 담은 책. 크게 6부로 나누어 있으며 제1부 마음의 여백, 제2부 사랑하며 이해하며, 제3부 살아가는 동안, 제4부 하얀 그리움, 제5부 내 마음의 풍경, 제6부 나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면서 틈이 나면 쓴 시다.

청옥문학사 | 133쪽 | 10,000원 | 201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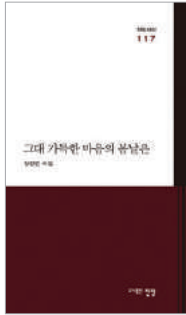
**너 지금 뭐 하고 있지** 송다인 지음

송다인 시인은 1997년 국제펜클럽(펜문학) 시 부문으로 데뷔하여 등단 20년 동안 17권의 시집을 발간했다. 일 년에 한 권씩 낼 정도로 다작의 시인이요 또 수필가로 재데뷔하여 한 권의 수필집을 상제한 수필가이기도 하다.

시는 자연, 생명, 여행이란 일반적인 소재에 충실하지만, 주부로서의 먹거리 시학과 같은 체험적 사실성을 바탕으로 여성적 삶을 시로 환치하는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적 삶이 한국적 토속의 음식 취향을 바탕으로 표현되고 있는 시로서 서로가 섞여 조화를 이루고 맛을 돋우는 상생의 의미를 시화한 것이다.

두손컴 | 156쪽 | 12,000원 | 2017.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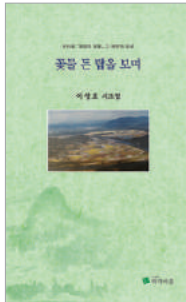




### 그대 가득한 마음의 봄날은 양선빈 지음

시전에서 작용되는 풍경을 과장하지 않고 순정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양선빈 시학의 중핵을 이룬다. 솔직하면서도 담백한, 대상에 대한 순결한 해석의 힘이야말로 양선빈이 갖춘 시적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지나간 연륜을 노화시키거나 경직화하지 않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눈으로 사물에 접근해, 그의 시적 이미저리와 관념이 승화되고 순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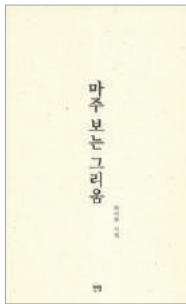
전망 | 120쪽 | 9,000원 | 2017. 09.



### 꽃물 든 탑을 보며 이성호 지음

이성호 시인은 시와 시조를 함께 쓰는 시인이다. 그렇다고 이번 시조집이 전통 율조에 맞춰 쓴 시조는 아니다. 현대시조는 보다 자유로운 음보를 취한다. 그렇다보니 마치 자유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그만큼 이성호 시인의 시 쓰기가 형식과 깊이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시조집은 이성호 시인이 평소 타골의 '동방의 등불'을 예찬하였듯 자신 또한 그 미래적 예견을 동일시하는 시편들이 많이 담겨있다.

작가마을 | 128쪽 | 10,000원 | 2017. 09.



### 마주 보는 그리움 허미호 지음

먼 타국의 현지 문화에 접속하면서, 태어나고 뼈대가 자란 고국의 정서를 접목하는 데서 새로움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사나 진리는 결코 고착화될 수 없는 한 인간의 새로운 삶과 안목과 감각을 통하여 창조되는 것임을 절감하게 된다. 어떤 지난함 속에서도 시를 견지하는 삶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녹록치 않는 건필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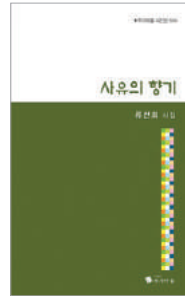
전망 | 128쪽 | 9,000원 | 2017. 06.



### 소망의 뜨락 송정인 지음

5년 전 설 무렵에 크게 아프고 나서 또 다른 인생을 위해 문학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글을 쓰면서 내 속의 보이지 않던 나를 찾게 되었고 아직도 내 마음의 싸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문학에 더 몰두하게 되었다. 강서문학의 길을 빛내 오신 선배문인들의 아름다운 강물에 가느다란 물길 한 줄기 더 보태어 열심히 또 조심조심 내 남은 인생을 문학과 동행하고자 한다.(시인의 말 중에서)

두손컴 | 128쪽 | 10,000원 | 2017. 05.



### 사유의 향기 류선희 지음

류선희 시인의 시들은 깔끔하다. 군더더기가 없다. 류선희 시인은 천주교 부산교구의 노래를 작사한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녀의 시에서 종교적 색채를 만나기 어렵다. 그만큼 객관적 실체로서의 시 쓰기를 하는 셈이다. 자칫 지나치게 종교적 색채를 펼 경우 문학성에 의심받을 수 있다. 류선희 시인은 종교와 문학은 별개의 진실임을 전편의 시에서 고스란히 내보인다.

작가마을 | 112쪽 | 9,000원 | 2017. 09.



### 지리산 빈들판 민수호 지음

제1부 그림자, 2부 대문을 엮어다, 3부 여름 생각, 4부 지리산, 5부 흐르는 것 등을 엮어 낸 시집. 산청함양사건에서 부모님 등에 업혀 살아남은 아픔을 되새겨 보면서 쓴 시다.

청옥문학사 | 194쪽 | 10,000원 | 2018. 06.



**바람의 아픔** 천상례 지음

1부 그리움에도 이별이 있을까, 2부 빗장을 열며, 3부 향수, 4부 지독한 끈기를 엮어 낸 시집. 작가는 청옥문학에 활동하는 시인이며, 여행을 떠난 시들을 불러 다듬어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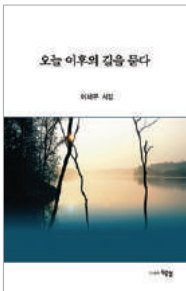
청옥문학사 | 153쪽 | 10,000원 | 2017. 09.



**눈 없는 목동이 소를 몰다** 보우스님 지음

부산 감천문화마을 관음정사의 보우스님의 법문시집이다. 보우스님은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국운안정을 위하여 하루 세 차례씩 1,000일 기도의 치성을 드렸다. 그 기간 동안 대통령 탄핵과 현재의 정부가 들어서는 등 나라의 안정이 찾아들었다. 그 천일기도 중에 쓴 스님의 법문시들이다.

작가마을 | 152쪽 | 10,000원 | 2017. 12.



**오늘 이후의 길을 묻다** 이채우 지음

상실감과 홀로서기를 위한 존재론의 시편. 시 「소복 입은 벚꽃」은 주지하다시피 생사의 기로에 선 내자內子를 간호하면서 잠시 독길을 걷는 시인의 간절하고도 외롭고 고통스런 현실을 담고 있다. 일부 생의 희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가족과 거의 희망이 없는 자신의 내자內子를 각기 극명하게 대립시킨 시구들이 마음 안의 감성과 심성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현재를 복원시키는 독백체의 시이다. 시어들의 시의적절한 배분으로 기회를 가지는 여러 근원적인 요소들이 호소력 있게 전개된 전연은 시인의 뛰어난 감각적 혜안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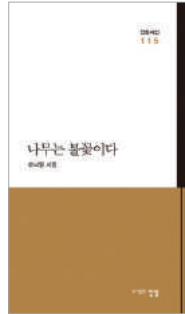
두손컴 | 124쪽 | 12,000원 | 2017. 11.



**금정산 그리고 중앙동** 조성순 지음

조성순 시인의 시집 『금정산 그리고 중앙동』은 시인 내면의 공간 저항성을 잘 표현해놓은 시집이다. 자동차 딜러로 살아가는 시인의 사물관과 내면에 존재하는 서정적 자아가 부딪히는 공간리듬을 통해 이미지의 확장을 시도하는 시인의 정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독자들은 바로 그러한 시를 통해 존재의 의의와 가치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마을 | 128쪽 | 10,000원 | 2017. 06.



**나무는 불꽃이다** 이나열 지음

이나열 시인의 시에는 삼산유곡을 울리는 메아리가 있다. 거기에는 철 따라 수많은 수목이 어우러져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자연의 섭리로 거대한 울림이 메아리로 살아난다. 그것은 바로 흙과 물과 공기로 빛어지는 생명의 울림이다. 이 울림에서 시인은 예리한 감각과 성찰로 새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하여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인다.

전망 | 168쪽 | 9,000원 | 2017. 03.



**도정법** 이석락 지음

제1부 도정법, 2부 저항, 3부 유관 관청, 4부 재개발 조합, 5부 민심, 6부 철거민 군상 등을 엮어 낸 시집. 서민의 아픔, 철거민의 아픔을 모르는 관공서의 잘못을 고발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했다. 그동안 10권의 시집을 낸, 서정시를 잘 쓰는 시인. 한국문협과 부산문협, 청옥문학에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옥문학사 | 237쪽 | 10,000원 | 2017. 12.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의 꽃이 피고** 정태운 지음

제1부 밤을 지새워 사랑 이야기 나누며, 2부 그리움에게 주는 편지, 3부 그대의 꽃이 되어, 4부 봄비 따라 오신다더니, 5부 와인과 우정 그리고 사랑 등을 엮어 낸 시집. 사업가이나 청옥문학에 등단하여 시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의 삶에 도전하는 작가가 어울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랑과 애정의 표현을 시집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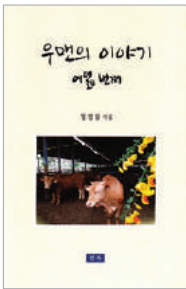
청옥문학사 | 194쪽 | 10,000원 | 2018. 06.



**가보자, 신라의 달밤을 두고온 그곳으로** 김순중 지음

시의 제3지대를 탐구 실험한 관념적인 서정시편. 현재를 탈피한 새로운 시도와 현재에 교착하지 못한 희망과 절멸을 혹은, 방황하는 또 다른 다수의 정신적인 위기 속의 민중에게 천년의 안정된 역사적 근원을 가진 최초의 통일국가인 '신라'에서 그 대척점을 찾아보자며 물음표로 남겨놓은 결구는 김순중 시인의 전체 시들을 규율하는 데 대단한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푸름사 | 124쪽 | 12,000원 | 2017. 10.



**우만의 이야기(여덟번째)** 정경삼 지음

제1부 가끔은, 2부 나무관세음 보살, 3부 벼에게, 4부 사랑과 행복, 5부 아름다운 마음, 6부 우만의 소망 등을 엮은 시집. 축산업을 하면서 여덟 번째 시집을 내는 열정의 시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움을 위해 작은 돌 하나에도 사랑할 줄 아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 쓴 시다.

청옥문학사 | 167쪽 | 10,000원 | 2018. 07.



**언제나 내 안의 당신** 현형수 지음

인간애적인 승고한 사랑을 발현한 애정시편. 시 「언제나 내 안의 당신」은 평생을 함께한 내자(內子)와 사별한 시인의 한 생애를 함축한 시로 추억 소묘와 인간애를 근거한 눈부신 부부애와 금슬과 사랑을 현재회귀형으로 응축한 시이다. 사별한 아내와의 정신적 사랑을 함께하고 있는 시인의 눈물겨운 회고적 사랑이 중심이 된 이 시는 감성이 우선되는 시의 표준이 제가끔 진실성을 더한 시어와 시행들이 우선 압권이다.

푸름사 | 120쪽 | 12,000원 | 2017. 07.



**흔을 담은 시조향기** 심애경 지음

제1부 보은의 당, 2부 고독, 3부 문학 도반, 4부 움직이는 조각, 5부 바느질, 6부 사랑 등을 엮어 만든 시조집. 꽃이 지는 순간까지 용솨음치는 심장을 남김없이 표출해내고 싶다는 시인은 시와 특히 시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부산청옥문학에 사무장으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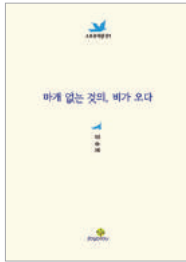
청옥문학사 | 173쪽 | 12,000원 | 2018. 06.



**마트료시카 인형** 김지은 지음

김지은 시가 기대고 있는 원리의 중심적 근거가 이러한 이미지의 담론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보다 더 현대적인 시에 집착할 때 불가피하게 섭렵해야 하는 그 과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의 집합체인 이미지러리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의 시가 성취하고자 하는 현대적 의식을 현시한다고 볼 수 있다. 자연보다는 도시문명에 천착하거나 또는 현대적 삶의 논리에 시적 핀트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경향에서 그의 현대시에 대한 집념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전망 | 168쪽 | 9,000원 | 2017. 06.



## 마개 없는 것의, 비가 오다 이승재 지음

가족사로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세상으로 나아가는 말문을 열고 있는 그의 시는, 그런 점에서 겸손하며 진솔하다. 자신의 삶을 과장하거나 뽐내지 않고, 따뜻한 대화와 만남에서 희망의 연대기를 창조하고 있다.

소요-You | 128쪽 | 9,000원 | 2017. 04.

소설 및 에세이





### 이야기를 걷다 조갑상 지음

소설 속을 걸어 부산을 보다

소설을 통해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한 조갑상 소설가의 에세이집. 이번 개정판은 10여 년 동안 변한 부산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 작가는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일일이 소설 속 그곳을 다시 걸었다. 새롭게 추가된 부산 배경의 소설들은 초판보다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산지니 | 304쪽 | 16,000원 | 2017. 12.



### 귀농·귀촌·귀산촌 길잡이 이은호 지음

본 책은 귀농을 꿈꾸는 '연급퇴직자를 위한' 책이다. 귀농은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낭만적 생각으로 시골로 내려갔다가는 고생하거나 실패 확률이 높다. 전직 교사 출신의 시인이자 수필가인 이은호 선생이 10년간 귀농생활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귀농을 염두에 둔 독자들을 위하여 실제적 정보를 수필 형식으로 알려준다.

작가마을 | 244쪽 | 13,000원 | 2017. 05.



### 큰 부산할매, 렌터카로 유럽을 누비다 금유진 지음

40년 이상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저자는, 소진된 정신과 육체를 돌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커다란 상 하나를 주기로 결심한다.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렌터카 여행에 도전하기로 마음 먹고 일흔 다섯의 나이에 매일 장거리 운전을 하고, 뽀뽀한 일정에 매일 짐을 싸고 풀고, 끼니를 챙기며 낯선 문화 앞에 자신을 던져놓는다.

호밀밭 | 214쪽 | 13,000원 | 2017. 12.



### 청사포에 해녀가 산다 배은희, 최봉기 지음

『청사포에 해녀가 산다』는 에코에코협동조합이 2016년 5월부터 약 4개월간 청사포 해녀들을 만나며 사진과 글로 남긴 기록이다. 제주 출신이 아닌 자생적 육지해녀인 청사포 해녀들의 물질하는 이야기와 살아온 이야기를 채록하고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청사포 해녀만이 가진 이야기와 속성을 담아내려고 했다.

빨간집 | 221쪽 | 15,000원 | 2017. 10.



### 무저갱 반시연 지음

희대의 살인마 노남용을 교도소로 다시 돌려놓으려 치밀하게 뗏을 준비한 사내. 어느 특별한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노남용을 죽여야만 하는 사내. 약물과 가스로 491명을 안락사 시킨 선생님이라 불리는 사내. 노남용을 둘러싸고 세 개의 시점으로 벌어지는 강렬한 서사! 죄 지은 자가 제대로 된 형벌을 받지 않는 이 사회에 작가가 던지는 차갑고도 뜨거운 돌직구!

인디페이퍼 | 408쪽 | 13,000원 | 2018. 06.



### 거기서, 도란도란 이상섭 지음

부산 구석구석, 이상섭 펍집

해운대, 사직종합운동장, 대저 적산가옥, 정과정공원 등 부산의 역사가 깃든 몇몇 장소들이 작가가 그려낸 '허구'의 서사를 통해 16편의 이야기 속에서 재탄생했다. 작가는 지속적으로 '부산의 장소성에 천착하여 역사적 실체가 삶 의 장소인 부산을 발견하는 다채로운 시선을 보여준다.

산지니 | 240쪽 | 14,000원 | 2018. 04.



**곤대가 쓴 이바구** 안규권 지음

오솔길을 가다보면 헛갈리는 갈래길을 만나기도 하고 숨찬 고비길도 만난다. 오솔길이 그러하듯 인생길도 같다. 세상의 모든 길이 다 굴곡이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오솔길은 정직하다.

‘이 길로 가면 가깝지만 돌려 가면 편하다’는 교훈을 던지지만 눈 먼 길을 가고 있는 것은 길이 아닌 나 자신이다.

두손컴 | 180쪽 | 12,000원 | 2017. 05.



**이렇게 웃고 살아도 되나** 조혜원 지음

조혜원 산문집

서른을 훌쩍 넘겨 서울 생활을 접고, 아무 연고도 없는 외딴 산골에 첫발을 디딘 용감한 여자가 있다. “갈한 선택일까, 과연 여기서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 반, 설렘 반으로 깊은 산골짜기 언덕 위의 하얀 집에 깃든 지 어느덧 5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산살림, 들살림을 맛깔스럽게 그려낸다.

산지니 | 256쪽 | 15,000원 | 2018. 05.



**별뿔처럼 오신 당신** 노경자 지음

무릇 위대한 예술가와 철학자는 문화 의사로서 바른 가치 판단을 가지고 문화적 기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그 속에서 피어나는 병원균을 즐겁게 박멸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삶을 고양하고 증진시키는 새로운 가치를 창안할 줄 알아야 한다. 뛰어난 작가라면 현실 인식과 마주하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읽을 줄 아는 문화 의사가 되어야 한다. 노경자 작가는 베테랑 수필가답게 예리한 시선과 깊은 통찰로 수필의 문학성을 끌어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문화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진단할 줄 아는 즉, 문화 의사의 역할을 하는 몇 안 되는 작가이다.

두손컴 | 204쪽 | 10,000원 | 2017. 10.



**폭식광대** 권리 지음

2004년 장편소설 『사이코가 뜬다』로 제9회 한겨레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한 권리의 첫 소설집이다. 네 편의 단편소설들은 모두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쓰인 소설들은 기묘한 분위기 속에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녹여 넣은 블랙코미디들이다.

산지니 | 176쪽 | 12,000원 | 2017. 07.



**지금도 책과 연애중** 천성호 지음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 ‘책’이라는 특별함을 입히는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새로운 책을 손에 들면 여전히 설렌다는 그는, 이 책을 통해 그 중독과도 같은 설렘을 함께 맞보지 않겠냐며 독자들을 유혹한다.

리딩소년 | 272쪽 | 13,500원 | 2017. 06.



**내 마음속의 난로(개정판)** 봄눈별 지음

인디언 플루트, 갈림바, 행드럼 등을 연주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온 음악가 봄눈별이 이번에는 생활 틈틈이 써 내려간 문장으로 독자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

호랑이출판사 | 189쪽 | 12,000원 | 2018. 05.



### 시간 망명자 김주영 지음

일제 강점기 친일파를 처단하던 밀정 강지한이 미래로 시간이동되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쇄살인사건의 내막을 파헤침과 동시에 자신을 그곳으로 부른 이의 복수를 해 나가는, 시간이동 하드보일드 SF스릴러, 과학과학관 주관 SF어워드 장편소설 부문 대상 수상작, 중국 최대 SF출판사에 판권 수출 화제작!

인디페이퍼 | 392쪽 | 13,000원 | 2017. 01.



### 범죄의 재구성 광명달 지음

현직수사관의 실화소설. 형사들의 활약을 다룬 범죄소설로서, 실제 형사가 직접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현직 수사관인 광명달 동래경찰서장이 그간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들 중 사회에서 주목받았던 사건들을 소설로 재가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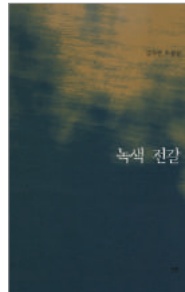
해피북미디어 | 248쪽 | 15,000원 | 2017. 03.



### 망각의 유산 김성용 지음

김성용 소설. 정년퇴직을 한 언론인 출신 주인공이 부산 기장에 터를 잡고 도자기를 빚는 장인 운봉 선생과 해후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우리 도자기의 발자취와 속내를 들려준다. 주인공 김 기자는 일본과 부산 기장을 오가며 한일 양국 사이에 놓인 도자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동안 한일 양국의 지나간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호밀밭 | 228쪽 | 12,000원 | 2017. 12.



### 녹색 전갈 김서려 지음

'녹색전갈'은 직장 상사인 선배에게 폭언과 성추행에 시달리는 화자가 어느 날 충동적으로 그 선배를 고발하는 이야기다. 선배는 화자를 회사에 취직시켜 주었지만 그것을 빌미로 화자를 괴롭혔다. 자신의 머릿속에 살고 있는 뭔가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 화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추적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유년 시절, 동네 사람과 싸우는 아버지를 피해 올라간 동산에서 본 녹색 전갈이라고 생각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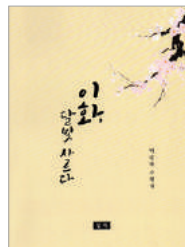
전망 | 232쪽 | 13,000원 | 2017. 12.



### 사할린 1, 2, 3 이규정 지음

부산 문단 원로 이규정 소설가가 1996년 『먼 땅 가까운 하늘』 제목으로 출간한 뒤 21년 만에 재출간한 소설이다. 일제 강점기 사할린 탄광에 끌려간 사할린 동포들의 눈물과 회한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재출간하면서 소설 속 등장인물을 새로 요약했고 사할린 지명을 담은 지도를 게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산지니 | 352쪽, 356쪽, 356쪽 | 각권 16,000원 | 2017. 05.



### 이화 달빛 사르다 이승숙 지음

논산 출생. 문인협회에서 활동하며 수필만 고집하는 크리스찬 작가. 흩어져 있는 글의 조각에 날개를 다는 심정으로 쓴 수필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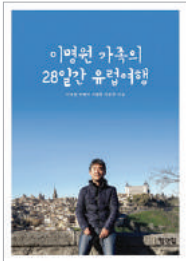
청옥문학사 | 195쪽 | 12,000원 | 2017. 08.



### 문학을 탐하다 최학림 지음

경남·부산의 작가 18명을 소개한 산문집으로, 문학담당 기자생활 20년 동안 써내려간 지역문화 기록이다. 시인 박태일 김언희 유홍준 성선경 최영철 엄국현 신진 조말선 정영태 최원준, 시조 시인 박권숙, 소설가 이복구 김곰치 조갑상 정영선 강동수 정태규 이상섭 등을 차례로 이야기한다.

산지니 | 304쪽 | 18,000원 | 2017.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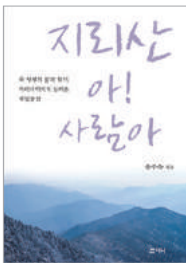


### 이명원 가족의 28일간 유럽여행

이명원, 곽현미, 이영주, 이동주 지음

평범한 중년 가장 이명원이 준비한 28일간의 유럽여행 일지.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주요 장소들을 다니며 느꼈던 가족애가 담긴 여행 경험담이다. 본인과 같은 중년남성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여행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여행준비와 여정, 여행지 정보, 여행 중 에피소드 등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가장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경험담을 담았다.

빨간집 | 265쪽 | 15,000원 | 2018. 03.



### 지리산 아! 사람아 윤주옥 지음

지리산국립공원 산골짜기에 사는 토박이 어르신들의 구구절절 한 이야기. 지리산의 아름다움과 개발에 신음하는 안타까운 풍경 등을 담은 연서 같은 에세이집. 저자는 국립공원 관련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에 반했고, 지리산의 아픔에 공감하며 살고 있다.

산지니 | 260쪽 | 15,000원 | 2017. 10.



###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 정문숙 지음

정문숙 수필집

늦은 나이에 글을 쓰기 시작해 크고 작은 공모전과 문학상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꿈을 키워온 저자의 수필들이 담겨 있다. 구성과 내용 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다소 힘에 부쳤던 과거의 일들을 담담한 문체로 풀어내며 비슷한 처지이거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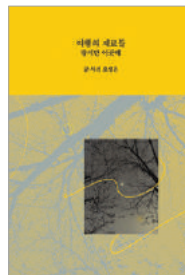
산지니 | 214쪽 | 13,000원 | 2017. 12.



### 산복도로 이바구 손민수 지음

산복도로 여행을 최초 기획한 손민수 반장이 쓴, 부산 산복도로만을 다룬 최초의 여행안내서 겸 여행에세이! 방향을 잃기 딱 좋은 정리되지 않은 길들. 한 사람 지나가기도 힘든 좁은 골목. 그 사이에 촘촘히 들어선 집들.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공존하는 도시. 그 도시 가장 높은 곳의 가장 낮은 길, 산복도로.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박한 이야기를 만나고, 밤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만난다.

인디페이퍼 | 396쪽 | 15,000원 | 2017. 06.



### 여행의 재료를 오성은 지음

잠시만 이곳에

바다와 여행을 사랑하는 청년이 소설, LP, 맥주, 영화, 버스킹, 그리고 낯선 타국에서의 경험 모두를 여행이라는 렌즈를 통해 느끼고 기록했다. 낯선 여행지에서의 소소한 일상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았다. 저자는 떠남으로써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그 무엇보다 뜨겁게 자신이 경험한 감각을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호밀밭 | 184쪽 | 13,000원 | 2017. 12.





**유마도** 강남주 지음  
조선통신사 변박 버드나무 아래 말을 그린다

일본 시코쿠 섬에 있는 외딴 절에서 200여 년 전 조선 화가의 작품이 발견된다. 그것도 조선에서는 이름도 없는 변방 동래의 화가의 작품이. 유마도. 이 작품은 버드나무 아래 있는 말을 그린 것으로 변박의 대표적 작품으로 손꼽힌다. 소설가 강남주는 변박의 행적을 좇으면서,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재구성한다.

산지니 | 264쪽 | 13,800원 | 2017. 10.



**청춘, 부산에 살다** 김가이 외 13명 지음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책이다.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나 지나온 시간이고 고민했을 법한 이야기들이다. 부산에 남아 있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모두가 공감해 줄 수 있었으면 한다.

비온후 | 191쪽 | 14,000원 | 2017. 10.



**명랑한 외출** 김민혜 지음  
김민혜 소설집

제2회 금샘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김민혜의 첫 소설집. 오랜 시절 작가의 삶의 터전이었던 부산의 정서가 작품마다 녹아 있다. 아이와 현실 사이에서 아이를 포기하는 미혼모의 이야기를 다룬 표제작 「명랑한 외출」을 비롯해, 가족과의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 외로운 기러기 아파 등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산지니 | 238쪽 | 13,000원 | 2017. 11.



**노루똥** 정형남 지음  
정형남 소설집

여덟 편의 단편소설로 구성된 『노루똥』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작가의 모습을 심분 담고 있다. 다 풀어진 것 같은 고향의 이야기보따리는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아 독자들의 마음을 추억으로 적신다. 작품의 인물들 또한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있고 있던 고향으로 성큼 다가서고, 고향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다.

해피북미디어 | 232쪽 | 13,000원 | 2017. 11.



**우리들, 김** 황은덕 지음  
황은덕 소설집

임양이라는 소재를 통해 사회구조와 남성권력을 겨냥하는 동시에 당사자들의 능동성과 연대성을 부각시키는 소설집. 표제작 「우리들, 김」을 비롯해 「엄마들」, 「해변의 여인」 등의 작품을 통해서 임양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끊어진 관계를 둘러싼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만날 수 있다.

산지니 | 240쪽 | 13,000원 | 2017. 12.



**달의 귀환** 김응숙 지음/김영봉 사진

어린이가 같은 천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잘 산다는 것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별개의 일입니다. 저는 미술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김응숙의 글은 마치 그런 미술과 같다. 그 초자연적인 주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극히 세속적인 우리들에게도 오래된 기억을 체험하게 한다.

전망 | 248쪽 | 12,000원 | 2017. 10.



### 달라서 좋은 날에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 지음

다문화사업단 '더불어 총서' 첫 번째 책. 다문화를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책에는 11명의 지인들이 쓴 5편의 소설과 5편의 수필, 그리고 1편의 단편만화가 담겨있다. 다양한 장르가 담긴 구성 자체가 다문화적이다. 11명의 지인들은 각자의 작품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든 '다문화'의 현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호밀밭 | 208쪽 | 12,000원 | 201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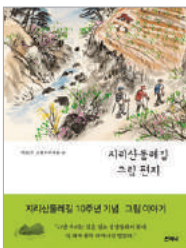


### 암막의 게르니카

하리다 마하지음/김 완 옮김

1937년 스페인 내전 당시 나치가 폭격한 소도시 게르니카. 그 비극을 모티브로 그린 피카소의 그림이 바로 [게르니카]다. 반전(反戰)의 심벌인 이 그림은 태피스트리로 만들어져 뉴욕의 UN본부 로비를 장식하고 있다. 그런데 2003년 어느 날 돌연 이 태피스트리가 모습을 감추었다! 현대의 뉴욕, 스페인과 2차 세계대전 전 파리가 교차하는 지적 스틸 넘치는 장편소설!

인디페이퍼 | 444쪽 | 15,000원 | 2017. 09.



### 지리산둘레길 그림편지

이상운 지음/이호신 그림

'길 위의 화가' 이호신 화백의 풍부한 지리산 실경 산수와 '둘레길 지킴이' 이상운 이사의 성찰이 함께 담겼다. 이 책은 '생명'과 '평화'라는 화두로 자연과 사람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지리산 살이에 공감하는 뜻깊은 기록이다. 한 권의 책 속에서 지리산의 빼어난 풍경과 더불어 그 속에 새겨진 삶의 현상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산지니 | 256쪽 | 20,000원 | 2018. 02.



### 강에게 고향을 묻다

안영순 지음

안영숙 수필은 그녀 삶의 고백서가 담긴 작은 서사문학이다. 모든 사물들을 새롭게 보고 해석하려는 창의력이 잘 설정되어 있다. 그만큼 이번 수필집에서 그녀가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다움'의 서정이다. 아롱다롱 살아가는 인간사의 소소하고도 아기자기한 맛을 풍미한다.

작가마을 | 220쪽 | 13,000원 | 201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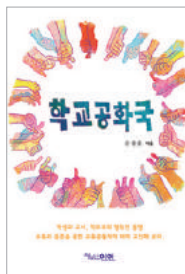


### The Wonderful Story Club

박신지 지음

어린 시절 영국 런던에서 생활하며 쓴 영어 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에세이집. 열 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마주했던 소소한 일상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꾸밈없는 필체와 순수한 생각들을 통해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산지니 | 150쪽 | 13,000원 | 2018. 02.



### 학교공화국

김철홍 지음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저자가 현장에서 느낀 고민과 생각을 바탕으로 가상의 학교인 '학민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교육에 대한 고민, 수업에 대한 고민, 배움에 대한 고민,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담아내고 있다. '학교공화국'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과 공존을 통해 교육공동체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쌤난인연 | 326쪽 | 12,000원 | 2017. 11.



### 달도 밝다 보름달이거든 안경덕 지음

밤마다 하루 일과를 돌아보며 달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주섬 주섬 털어 놓는 게 일상이 됐다. 말없는 달이 큰 위로가 된다.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과 나만 만나주는 믿음 때문이다. 달도 때론 숲속이 갑갑하여 비가 오면 그 빗물인 척하면서 눈물을 흘리리라. 그럼에도 언제나 꽃처럼 활짝 웃고 있다.

도서출판 샤인텔 | 248쪽 | 13,000원 | 201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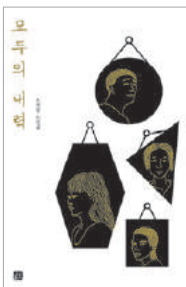


### 생각하는 사람들 정영선 지음

정영선 장편소설

탈북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인 하나원 내 청소년학교에서 2년간 파견교사로 근무한 정영선 작가의 장편소설. 자유를 찾아 남한을 선택한 수지, 축구를 하고 싶었던 창주, 글을 잘 쓰는 선주 등 각기 다른 이유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남한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과 외로움, 한국사회의 또 다른 어둠을 그려낸다.

산지니 | 280쪽 | 14,000원 | 2018. 05.



### 모두의 내력 오선영 지음

소설가 오선영이 등단 5년 만에 펴내는 첫 소설집이다. 총 8편의 작품이 수록된 이 작품집은 정주할 곳을 상실한 채 부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삶을 리얼리티 넘치는 소재와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현대인의 가식적 삶과 위장된 인생의 허위의식을 폭로하며 부유하는 삶들에 대한 작가의 응시가 돋보인다.

호밀밭 | 276쪽 | 13,000원 | 2017. 12.



### 적도제 이상열 지음

작가는 소년 시절부터 바다를 동경하며 바닷가에서 살다 보니 바다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남다르다. 달려머니로 참치 떼가 세계의 바다를 회유한다. 스릴과 서스펜스 넘치는 그 바다에 피 끓는 젊은이들이 한 번 도전해 볼만하다. 바다 사나이들의 거친 일상과 이국의 로맨스, 대양의 서정을 그려보고 싶다.

두손컴 | 134쪽 | 15,000원 | 2018. 04.



### 아직도 골목길에 그가 서 있다 권은섭 지음

수필가이자 심리치료사인 권은섭이 주는 치유 메시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위로나 책임지지 못하는 격려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봐 주고 기다려 주고 조용히 잡아주는 따뜻한 손이다.”(본문 중에서)

도서출판 샤인텔 | 226쪽 | 11,000원 | 2018. 01.



### 히말라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이상배 지음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전문 산악인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히말라야 원정기. 단순히 취미로 등반을 즐기던 그를 에베레스트, 아콩카구아, 킬리만자로 등 세계 8천미터급 고산의 최고봉으로 오르계급 한 신념과 늘 자연에서 세상사를 배우고자 하는 사유가 깃들어 있다.

산지니 | 271쪽 | 17,000원 | 2017. 09.



### 제주도의 흠이 된다는 것 김창생 지음/양순주 옮김

『제주도의 흠이 된다는 것-재일 2세 김창생 에세이』는 일본 신칸사(新幹社, 도쿄 소재)에서 출간한 『제주도에 살면』(『濟州道で暮らせば』, 2017)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은 일본 오사카에서 나고 자란 재일 2세인 김창생(金蒼生, 1951~) 작가가 2010년부터 부모님(재일 1세)의 고향인 제주도로 이주해 와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적어온 글들을 엮어서 출간한 것이다.

전망 | 264쪽 | 14,000원 | 2018. 04.



### 울속도, 갈대숲을 거닐다 이상섭 지음

이상섭 르포산문집

부산의 명소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일제강점기, 전쟁 등 다사다난했던 근현대사가 곳곳에 아로새겨진 부산. 이 책을 통해 부산은 단순한 볼거리로서의 공간을 넘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독자들의 마음속에 다가선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기억을 땀도는 역사 지식은 덤이다.

해피북미디어 | 232쪽 | 13,000원 | 2017. 12.



### 참 소중한 당신 허일만 지음

시인이자 수필가인 허일만 선생의 유고집이다. 허일만 선생은 1960년대 이전 유명했던 진주의 개천예술제 출신으로 시와 수필을 써온 분이다. 또한 부산일보에 '살롱'을 고정적으로 쓰며 날카롭고 분명한 주장을 펼쳤던 분이다. 이번 유고집은 그의 미발표시와 묵지 못한 수필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담았다. 특히 아내 선영자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눈물겹다.

작가마을 | 160쪽 | 12,000원 | 201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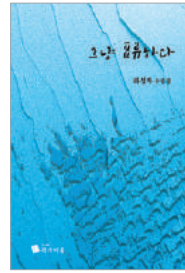


### 산골에서 혁명을 박호연 지음

박호연 에세이

제도가 만들어놓은 패턴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방식으로 살아보기엔 도시보다 산골이 더 좋을 것 같아, 서울에서 나고 자라 여의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여자는 캐나다인 남자를 만나 무주 덕유산 자락에 신혼집을 차렸다. 그리고 어느덧 아이 넷을 낳아 기르며, 요상한(?) 손님들을 맞으며 좌충우돌 살아가는 그 여자 박호연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산지니 | 240쪽 | 14,800원 | 2018. 02.



### 그냥 표류하다 라성자 지음

라성자 수필가의 작품 속에는 끈질기게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 있다. 철학을 굳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아도 라성자의 수필 속에 철학이 살아 있음을 표제만으로도 넉넉히 읽어볼 수 있다. 그만큼 라성자의 이번 수필집 『그냥 표류하다』가 작가의 첫 수필 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이다.

작가마을 | 170쪽 | 12,000원 | 2017. 10.



### 나는 장성택입니다 정광모 지음

정광모 소설집

표제작 「나는 장성택입니다」는 역사적 인물의 고백으로 진행되고, 선택의 기로 앞에 선 주인공의 삶과 행복을 돌아본다. 또한 리얼리즘 작품에서부터 역사적 소재로부터 시작해 스텔러릭 분위기를 띠는 작품, 노인 문제를 빅데이터와 결합시킨 작품까지 다채로운 이야기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산지니 | 224쪽 | 14,000원 | 2018. 05.



### 우리 궁둥이의 춤 장덕영 지음

교직을 마치고 소설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워 한국소설가협회의 한국소설 신인상에 당선되고, 11편의 단편을 모아 출간한 첫 단편소설집이다. 40여 년 교사로서 작가의 삶이 각 작품에 배어 있고 청춘, 사랑, 고통, 실패 등 인간세상의 희로애락이 진하게 버무려진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육일문화사 | 288쪽 | 12,000원 | 2017. 10.



###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설정실 지음

설정실의 소설은 특이하다. 첫 소설집임에도 세간의 눈치를 전혀 살피지 않고 뚜렷한 주제의식이 강하다. 12편의 소설들이 모두 실버소설이다. 노인을 주제로 한 소설집을 신인이 묶어내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작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만큼 뚜렷한 주제의식만큼이나 설정실 소설가의 글쓰기의 분투가 충분히 보이는 책이다. 한국 최초의 실버소설!

작가마을 | 384쪽 | 13,000원 | 2017. 04.



### 창작희곡집

제35회 부산연극제 희곡집

해마다 부산 연극판을 뜨겁게 달구는 부산연극제의 입상작품들이다. 2017년 제35회 부산연극제에 참여하여 입상한 7편의 창작희곡집들이 실렸다. 출판극단의 성격과 작품성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창작집이다. 그만큼 현장성 강한 희곡집인 만큼 연극이나 희곡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책이다.

작가마을 | 400쪽 | 20,000원 | 2017. 09.



### 그 사람의 풍경 김춘자 지음/그림

화가 김춘자 산문집

47편의 산문을 통해 작품 뒤에 숨겨진 작가의 일상과 사색을 담고 있다. 생명의 숭고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의 찰나에서 움트는 삶의 의미를 포착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2017년 세종도서 우수문학도서.

산지니 | 208쪽 | 14,800원 | 2017. 03.



### 싸락눈 향기 날 때 새봄이 온다 신기용 지음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인 신기용 작가의 첫 번째 산문집이다. 신기용 작가는 문학평론집 6권, 동시집 2권, 시집 2권을 펴낸 바 있으나, 산문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문집 『싸락눈 향기 날 때 새봄이 온다』의 언어는 시어에 가깝다. 비유와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장은 운율을 갖추었고, 이미지가 선명하다. 소재와 제재는 꽃, 무지개, 싸락눈, 바다 등 자연을 다루고 있다. 자연을 예찬하면서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도서출판 스토리팜 | 120쪽 | 13,000원 | 2018. 02.



### 비꽃을 보다 김덕조 지음

김덕조 수필가의 첫 수필집이다. 김덕조 선생은 늦게 문학을 시작한 만학도 수필가이다. 하지만 그 늦게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밀조밀한 작품들을 담고 있다. 이번 수필집을 '마음의 산책'이라고 지은이가 말할 정도로 『비꽃을 보다』는 김덕조 수필가의 인생의 산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작가마을 | 224쪽 | 12,000원 | 2018. 01.

**조선기모노** 김승혜 지음

김승혜 두 번째 수필집이다. 저자의 소소한 일상 속 이야기이다. 소란스러운 삶을 싫어하는 저자의 일상과 예술의 절묘한 표현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세월에 따라 묵묵히 걸어온 시간이 담긴 글을 통해 독자들을 작가의 수필 세계로 안내한다.

비온후 | 222쪽 | 15,000원 | 2017. 11.

**오늘은 일진도 좋고** 하라다마하 지음/김완 옮김

일본 드라마 『오늘은 일진도 좋고』 원작소설! 평범한 직장여성에서 세상을 바꾸는 스피치라이터로. 말의 울림을 깨닫는 감동의 스토리! 유명 미술관 큐레이터 출신인 작가 하라다 마하가 말의 힘과 아름다움을 다룬 소설. 스피치라이터라는 독특한 소재와 드라마틱한 구성은 드라마 제작 및 45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디페이퍼 | 360쪽 | 15,000원 | 2018. 06.

**길가메시 프로젝트** 강성민 지음

어둠 속에서 빛을 포착하고 또한 눈을 멀게 하는 빛 속에서 어둠을 감지하려는 의지, 그런 의지들이 분유되어 흘러넘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만이 이미 주어진 세계에 포박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기적의 시간'을 매순간 창출해낼 수 있으리라.

전망 | 232쪽 | 13,000원 | 2017. 12.

**생을 버티게 하는 문장들** 박두규 지음

박두규 산문집

지리산 권역에서 활동하며 자기완성과 사회적 실천을 지향하는 시인 박두규의 산문집.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자연, 인간, 문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한다.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질서에서 한 걸음 물러나 산의 품성과 자연이 전해주는 순수한 땅의 의미를 접할 수 있다.

산지니 | 220쪽 | 13,000원 | 2017. 03.

**국경선의 모퉁이** 류현옥 지음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각각의 단편들에는 독일인들의 이름과 유럽의 사회상들이 등장하지만 그 장면들은 한국의 구체적인 일상과도 맥이 닿아 있다. 독일에 사는 외국인 혹은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로서 바라보는 이 세상은 비록 언제나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전망 | 312쪽 | 13,000원 | 2017. 11.

**구텐탁, 동백아가씨** 정우련 지음

정우련 산문집

인생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아름다움을 읽는 저자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다. 저자의 글을 통해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와 버린 '어딘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억에만 남은 그리운 '누군가'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 말한다.

산지니 | 260쪽 | 13,000원 | 2017. 12.





### 비상 최문정 지음

저자가 13년 동안 서비스직에 근무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2,30대를 비롯한 직장인과 함께 공유하고자 썼다. 보안요원으로 서 어쩔 땐 여자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어쩔 땐 남자의 입장으로 생각하며 일을 하기 위한 직업이라기보단 사람을 상대하며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고충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과 보안요원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있는 사실 그대로 담았다.

무량수 | 216쪽 | 12,000원 | 2018. 03.



### 이니스프리, 그 이루지 못한 꿈 김안희 지음

김안희 산문집

총 46편의 짧은 산문에서 작가는 문학과 예술 작품을 주제 삼아 담담하게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부터 릴케의 '가을날'까지 국내와 해외 작품에 구분을 두지 않고 다루는 범위가 매우 넓다. 노년이 되어서도 시와 음악이 있어 즐겁고 행복하다는 저자는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그 행복의 비결을 전한다.

산지니 | 248쪽 | 13,000원 | 2017. 11.



### 사라진 그림자(상, 하) 심우 지음

추리와 스릴러를 넘나드는 정교한 구성! 숨 돌릴 틈 없는 추리 무협의 진수! 절세고수 태허진인이 남긴 최고의 비급, 「무극진경」. 그러나 무림의 평안을 위해 비급의 행방에 대해 탐구하던 태허진인은 사대제자들에게 진경의 비밀이 담긴 네 개의 물건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그 일이 있고 십수 년이 지난 어느 날, 사대제자 중 두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사건은 시작되는데…….

인디페이퍼 | 408쪽, 388쪽 | 각권 11,000원 | 2018. 03.



### 프린세스 붐 박현철 지음

1997년 김소진 원작의 <자전거 도둑>을 각색하면서 등단한 박현철 작가의 첫 희곡집. 첫 공연된 <장미빌라 살인사건> 외 <맨발의 청춘 이장천>, <프린세스 붐> 등 박현철 희곡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이다.

도서출판 도요 | 368쪽 | 18,000원 | 2017. 12.



### 아으 동동 유병근 지음

시인으로 잘 알려진 유병근 선생은 수필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이다. 단순히 생활수필이 아닌 예술수필을 추구하는 저자는 “시와 수필은 똑같은 문학의 장르이고 그 성격은 하나다”라고 주장한다. 그만큼 수필이 신변잡귀가 아닌 ‘시적 에네르지를 통한 창조적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필집 또한 그러한 상상력의 주옥같은 예술수필들이 자리하고 있다.

작가마을 | 226쪽 | 12,000원 | 2017. 10.



### 바다의 끝 김부상 지음

김부상의 소설은 바다를 추상화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수평선 너머의 막연한 가능성에 기댄 낭만적 감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오로지 바다를 살아가는 인간의 비루한 욕망과 바다를 향한 속명적인 그리움을 씨줄 날줄로 엮어 묵묵히 그려낼 뿐이다. 그의 서사가 진한 감동으로 와 닿는 것은 바다 체험의 과잉이 낳은 현란한 수사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글쓰기의 정직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망 | 248쪽 | 13,000원 | 2018. 06.



### 임진왜란 부산 그 길을 걷다 정약수 지음

오랫동안 부산에서 살아온 작가는 부산과 그 지역민이 겪은 임진왜란 역사를 오늘을 살고 있는 부산 사람들에게 제대로 일깨워주는 일을 스스로에게 숙제로 부과했다. 수난과 통탄에 굴하지 않고 그것에 가장 옹골게 맞선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지금의 우리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일깨워주기 위해 오랜 고민을 담아 내놓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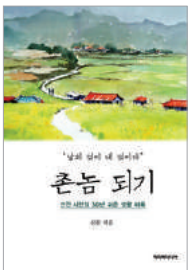
도서출판 해성 | 238쪽 | 15,000원 | 2017. 12.



### 멋진 신세계 유병근 외 지음

도요문학무크 열두 번째 책.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시민의식의 성장과 그 근원을 더듬어본 지난 호의 테마 '변화의 힘'과 연장선상에서 멋진 신세계에 대한 희망과 좌절을 평론과 시, 소설, 희곡을 통해 담아내고 있다.

도서출판 도요 | 304쪽 | 13,000원 | 2017. 11.



### 촌놈 되기 신진 지음

신진 시인의 30년 귀촌 생활 비록

신진 시인의 30년 귀촌 생활 비록. 도시생활의 팍팍함과 여유 없음, 무언가 탈출구는 필요한데, 앞은 캄캄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은 말한다. 삶은 단순치도 않지만 복잡하지도 않다. 시골생활의 꿈, 이모저모 고민으로 머리 복잡한 사람들에게 판단의 나침반 역할을 할 신진 시인의 시골생활 비법을 만날 수 있다.

해피북미디어 | 254쪽 | 15,000원 | 2017. 09.



### 용이 된 연어 김병국 지음

왜 사는가라는 질문이 젊은 시절의 화두였다는 작가가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쓴 수필집.

청록문학사 | 199쪽 | 10,000원 | 2017. 06.



### 투구와 피리 천안배 지음

저자는 삶과 사회의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전제로 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각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한다. 이 책에 수록된 그림은 저자가 직접 그린 것으로 일상의 사물들을 섬세한 눈으로 포착해내고 있다.

전망 | 320쪽 | 14,000원 | 2017. 07.



### 서해특정해역 이상열 지음

서해특정해역(북위 37°—30′ 동경 124°—00′)은 어자원의 보고이다. 하지만, 한 바다에 두 개의 국경선이 그어져 마음대로 넘나들며 고기를 잡을 수 없다. 1972년 12월 폭설이 내리는 날, 외두리 오양호가 소대청 바다에서 흥어를 만선하여 인천 귀항 도중 피랍된 이 해역을 중심으로 베일에 가린 북녘의 실상과 이념 갈등으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사랑을 그려 보고자 한다.

두손컴 | 192쪽 | 12,000원 | 2018. 04.





### 난나난나 너너너너 정일근 외 지음

도요문학무크 열세번째 책으로 새 편집위원회를 꾸린 도서출판 도요가 선보이는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이번 호의 테마는 '독거'이며, 우리나라 시단을 대표하는 정일근 최영철 시인의 대담을 통해 곤궁한 시대 문학의 자리를 돌아보고 있다.

도서출판 도요 | 232쪽 | 13,000원 | 2018. 06.



### 두 여자를 품은 남자 이야기 강동수 외 5명 지음

김하기, 강동수, 박향, 정인 소설가의 소설 동인 '사현금'의 첫 무크지이다. 사현금 동인들이 "새삼 무크지를 만들기란 한 것은 문학매체가 너무 흔해서 문학이 오히려 상업화 돼 가고 있으며, 중국에는 현실 세상과의 접점을 잃어가고 있는 역설적 상황 때문"이다.

호밀밭 | 260쪽 | 14,000원 | 2017. 12.



### 바람이 불면 물결 반짝이더라 김영순 지음

문학 작품을 통해 본 김영순 작가는 내면의 스펙트럼을 이성적 파장으로 조절 반사하는 프리즘 같은 사람이다. 그의 작품 속에는 일상에서 받아들이는 다양한 빛의 파장을 원만하게 조절하고자 하는 내면세계가 승화되어 있다. 이 행복 파장은 자아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조율하면서 세상과 행복 여행을 함께 하려는 '언어 수행言語修行을 통한 언어 수행言語修行'의 결실이다. 세상의 빛을 받아 내면의 파장으로 조절하는 프리즘 같은 사람 김영순 작가가 성찰로 일구어낸 꽃중년의 행복 물길을 살펴 보았다.

두손컴 | 282쪽 | 12,000원 | 2017. 11.



### 일생에 한 번은 히말라야를 걸어라 신한범 지음

안나푸르나에서 시작해 랑탕을 거쳐 콤부 히말라야까지 지난 16년 동안 아홉 번의 트레킹을 통해 만났던 사람들, 풍경, 잊지 못할 경험들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떠올려본 적 없는 그곳, '히말라야'. 전문 산악인이 아니면 감히 발조차 디딜 수 없는 곳이라 생각했던 저자는 불혹의 나이에 그렇게 첫 히말라야 등반을 시작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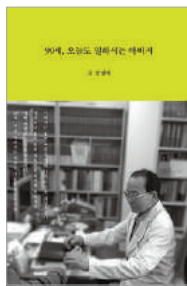
호밀밭 | 252쪽 | 13,000원 | 2017. 12.



### 우유부단은 힘이 세다 최영철 지음

백석문학상을 수상한 최영철 시인의 산문집. 2017년 상반기 한 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전자책으로 발간되었다. 시인의 일상을 담담하게 서술한 산문집.

도서출판 도요 | 346쪽 | 8,000원 | 2017. 12.



### 90세,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 정영애 지음

어느덧 60대 중반이 된 딸이 90세가 된 친정아버지의 삶을 조곤 조곤 회상하고 추억하며 기록했다. 90세의 나이에도 매일 변함 없이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아버님의 모습. 저자는 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남겨 후손들이 '아하 그분은 이렇게 사셨구나' 하며 알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아버지와 함께 한 지난날을 회상한다.

호밀밭 | 200쪽 | 13,000원 | 2017. 12.



### 정 의 화 의 아름다운 복수 정 의 화 지음

5선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의 지낸 정의화의 회고록이다. 유능한 신경외과 전문의이며 종합병원 경영인이었던 저자가 정치에 입문해 가족과 떨어져 자취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5선 의원으로 국회의장직까지 수행한 우여곡절을 담았다.

도서출판 도요 | 404쪽 | 15,000원 | 2017. 11.



### 사 봉 최 정 희 지음

최정희의 소설은 참혹하고 끔찍한 생의 모습을 날것으로 보여준다. 어쩌면 현실은 그보다 더 지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암담하고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작가는 포기하지 않고 길찾기를 하고 있다. 뜨거운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기에 인간에 대한 희망과 연대, 소통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전망 | 240쪽 | 13,000원 | 2017. 04.



### 네 얘기를 듣고 싶어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 지음

문화다양성을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담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사업단 '더불어총서' 두 번째 책. 이 책의 청년 저자들은 기득권 사회나 기성세대가 일방적으로 규정하거나 왜곡해 놓은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한 다문화 이야기를 담기 위해 내밀한 경험을 토해내거나 직접 취재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호밀밭 | 136쪽 | 12,000원 | 2018. 02.



### 대금 소리 백승휘 지음

대금 소리를 모티브로 한 파르티잔(빨치산)의 이야기다. 이 소설은 지리산뿐 아니라 마지막 빨치산이 신불산에서 최후를 맞이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등단하지 않은 작가가 이런 장편을 써 내려간 저력도 칭찬받을 만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소요-You | 224쪽 | 13,000원 | 2018. 05.





### 토순이와 충치대마왕 박소영 지음/박진샘 그림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창업동아리에서 제작한 아이들을 위한 그림 동화책이다. 전공과 관련된 양치질에 관한 내용을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동화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달하고 있다.

꿈공작소 | 40쪽 | 10,000원 | 2017. 11.



### 한밤의 아이스크림 트럭 서진 지음/김대홍 그림

소설가 서진과 그림 작가 김대홍이 함께 만든 그림이야기책이다. 반려동물이 삭막한 도시의 삶에서 사람에게 친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 이야기책이다. 작가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전해주려고 한다.

비온후 | 144쪽 | 15,000원 | 2017. 12.



### 엄마 사용 설명서 도린 크로닌 지음/로라 코넬 그림/강도희 옮김

칼데콧 아너상 수상작가의 그림책. 저자는 엄마와 아이의 역할을 뒤집어 본 독특한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았다. 엄마의 일상을 보여주고 설명서 형식을 취해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화난 엄마를 '작동 불량 엄마', 휴식 중인 엄마를 '전원 꺼진 엄마'라고 표현한 부분은 실제 물건 사용 설명서에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여 더 재미있다.

산지니 | 56쪽 | 16,800원 | 2018. 03.



### 별이 열리는 나무 구옥순 외 지음

부산아동문학인협회 우수작품선집 『별이 열리는 나무』는 부산아동문학인협회의 우수 작품을 엮은 책이다. 책에 담긴 주옥같은 작품을 통해 독자를 부산아동문학인협회의 작품 세계로 안내한다.

도서출판 해성 | 359쪽 | 20,000원 | 2017. 12.



### 옛이야기 밥 강경숙 외 4명 지음/추주희 그림

복잡하고 커다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살펴보면 우리 동네에도 골목골목마다 이야기가 가득하다. 우리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레 담았다. 부산을 대표하는 동화작가들이 복구, 동래구, 서구, 사하구, 강서구, 남구 등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와 민담을 정갈하게 재구성했다.

호밀밭 | 132쪽 | 12,000원 | 2017. 09.



### 내 짝지 순이 박지현 지음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동시'라는 시인의 신념을 그대로 간직한 채 펴낸 동시집이다. 동시집의 각각의 그림은 시인의 세 자매가 직접 그려 동시에 따스함을 더하고 있다. 푸른 지구가 365일 세심한 눈으로 보폭을 지켜나가며 이루어지는 자연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관찰하는 시인의 다정한 눈길이 동시집 곳곳에 묻어 있다.

도서출판 해성 | 110쪽 | 12,000원 | 2017. 12.



### 할머니의 그 물마중 임신행

옆에 있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어 서로 배려하며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동화집이다. 우정의 손을 먼저 내밀기를 권하는 작가는 단금지교(쇠라도 자를 만큼 강한 교분이라는 뜻으로 매우 두터운 우정)라는 말처럼 옆에 있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어 서로 배려하며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그 물마중』을 출간하였다.

도서출판 해성 | 110쪽 | 12,000원 | 2017. 12.



### 아기나무와 바람 장현정 지음/홍성기 엮음/배민기 그림

떠나고 싶지만 대지에 뿌리 박혀있는 나무와, 자리 잡고 싶지만 들 떠돌아야만 하는 바람이 만나 서로에게 의지하고 때로는 서로의 희망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축으로 자연과 우주, 세계와 삶에 대한 신비롭고 커다란 질문을 제시한다.

호밀밭 | 44쪽 | 8,000원 | 2018. 01.



### 왜 성당 다니세요? 구 용 지음/김수안 그림

신앙생활이란 얇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쉽게 풀어낸 신앙 시집이다. 어느 날 모임에서 우연히 '왜 성당을 다니느냐'는 질문을 받은 시인은 성당을 다니며 스스로 생각하고 느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시인의 이야기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동심(童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들을 엮어냈다.

도서출판 해성 | 127쪽 | 12,000원 | 2018. 03.



### 벚꽃 날리는 언덕 이상미 지음/박민 그림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들었던 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삶의 길잡이가 된 기억을 가진 작가가 이번엔 여러 친구들의 길잡이 별이 되고픈 마음을 담아 엮은 동화집이다. 작가는 8편의 동화를 통해 물질이 풍부한 세상에서 마음의 빈곤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자연과 뛰어놀며 마음 속 찌꺼기를 한껏 배출하고 영혼을 단단하고 야무지게 불들어 주위의 삶에 관심가지길 당부한다.

도서출판 해성 | 158쪽 | 11,000원 | 2017. 12.

인문 사회 자연





**동네 헌책방에서 이반 일리치를 읽다** 윤성근 지음

정보통신기업에서 일하다 야근과 격무에 지쳐 건강이 악화된 윤성근씨. 이반 일리치의 책을 읽고 '생활'의 중요함을 깨닫게 된 그는 회사를 그만둔 뒤 '이상한나라의헌책방'을 만든다. 11년간 책방을 운영해오며 벌인 심야책방, 공연, 책수선 등 재미난 실험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

산지니 | 256쪽 | 15,000원 | 2018. 06.



**해운대 바다상점** 화덕현 지음

마을기업 에코에코협동조합, 바다에 빠지다

비치코밍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바다상점'의 이야기를 담은 책.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해운대. 그곳에 자리잡은 에코에코(Eco Echo)협동조합의 이모저모와 '바다상점'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한다.

해피북미디어 | 144쪽 | 10,000원 | 2017. 07.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 순례길** 박창희 지음

부산은 대한민국의 파란만장한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급격한 압축성장을 해 온 도시다. 그러한 과정만큼이나 다양하고 흥미로운 종교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부산지역 대표 순례 코스 6곳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같이 걸어도 좋은 마음의 길을 느낄 수 있는 순례길이다.

비온후 | 300쪽 | 16,000원 | 2017. 12.



**소설로 찾아가는 그날들** 귀를 귀울이면 아이들 지음

이 책은 2017학년도 교육부 전국학생저자출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된 책으로 부산 동래여자중학교 인문책쓰기 동아리 '귀를 귀울이면'의 1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인문학 프로그램 기획의 구체적 지침서로, 일상적 수업에서는 독서토론의 참고서로 활용 가능하다. 학생들에게는 책을 만나고 놀고 자라는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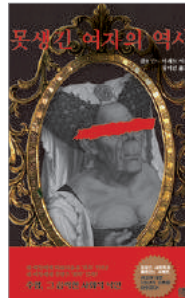
비온후 | 336쪽 | 12,000원 | 2018. 02.



**책 짓는 사람들** 지역출판워크숍 B-LAB 2기(강수인 외 23명) 지음  
부산 출판 이야기

부산콘텐츠코리아랩(지역출판워크숍 B-Lab)을 통해 1인 출판과 책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협업해 만들었다. 출판사, 유통단지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출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역의 출판사, 잡지 발행인, 서점, 인쇄소, 독자 모임 등 출판생태계에 있는 인물들을 찾아 질문을 던졌다. 또 관련한 정보들을 기획물로 담았다.

빨간집 | 193쪽 | 8,000원 | 2018. 03.



**못생긴 여자의 역사** 클로딘느 사게르 지음/김미진 옮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해 온 문제는 수천년의 시간에 걸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커져이 쌓여온 결과다. 그러므로 오래된 여성 혐오의 역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책 『못생긴 여자의 역사』는 여성의 외모를 둘러싼 혐오와 권력관계의 긴 역사를 추적한다.

호밀밭 | 364쪽 | 15,800원 | 2018. 06.



**삼차원 한자학** 이운부 지음 / 하영삼, 이화영 옮김

형체(形體), 구조[結構], 기능[職用]의 '한자학의 세 가지 평면 이론'을 적용한 한자학 최신 이론서. 중국 최고 명예의 '장강(長江) 학자' 이운부 교수(북경 사범대)의 최신 저작. 한자의 변화와 구조 및 문화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대작이다.

도서출판3 | 535쪽 | 27,000원 | 2018. 02.



**부산의 디자이너 '예술에 혼을 담다'** 김다희, 최장락 지음  
 <원로작가 서술대담록> -김현언-

김현언 선생님은 40년 전부터 디자인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부산에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발전의 기초를 만드시고 부산 디자인을 소통과 협업으로 이끌어 오신 공헌에 감사하며 오로지 '작품'이라는 화두 하나로 창의적 예술세계 구현과 부산 디자인 발전을 위해 평생 장인정신으로 작품 활동과 후학 양성에 불사른 선생님의 일흔은 작가정신이 서술대담록에 녹아있다.

두손컴 | 136쪽 | 20,000원 | 2017. 05.



**공자와 소크라테스** 이병훈 지음

동서 정치사상의 기원

동서 정치사상의 기원이 되는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삶의 궤적을 추적해 이상적 국가와 정치의 형태에 대해 궁구한다. 자신이 익힌 진리를 정치와 연결해 바람직한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공자,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도덕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소크라테스. 저자는 국가와 인간의 관계를 주제로 두 인물의 정치사상을 비교 분석한다.

산지니 | 354쪽 | 25,000원 | 2018. 03.



**거리 민주주의** 스티브 크로셔 지음 / 문혜림 옮김

시위와 조롱의 힘

미국, 유럽, 중동, 중국까지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시위 현장 모습을 일곱 가지 주제로 묶어 소개한다. 특히 각 시위 현장의 모습을 담은 79개의 사진은 독자들이 짙막한 글만으로는 그려보기 힘든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행동'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산지니 | 184쪽 | 19,800원 | 2017. 07.



**부산, 영화로 이야기하다** 김이석 지음

이 책은 해방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영화의 성장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영화도시 부산을 일구기 위해 헌신해 온 영화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김지석, 전수일 감독, 홍영철 원장 그리고 부산독립영화협회와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등등. 또한 부산을 근거로 활동하는 감독들에 대한 소개와 이들의 작품세계를 다룬 비평도 들어있다.

비온후 | 238쪽 | 16,000원 | 2017. 10.



**삐딱한 책임기** 안건모 지음

안건모 서평집

버스 운전기사를 하며 글을 쓰다 월간 <작은책> 편집장을 맡은 안건모씨의 서평집. 민주주의, 노동의 가치, 우리말과 글, 만화와 예술, 역사 문제, 국가의 역할 등 주제별로 시민의식을 깨우는 책 70여 권을 소개한다. 2017년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산지니 | 280쪽 | 15,000원 | 2017. 06.





**마닐라 갤리온 무역** 서성철 지음

16~19세기 250년간 멕시코 아카풀코와 필리핀 마닐라 사이에 이뤄진 '마닐라 갤리온 무역'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이정표를 세운 세계무역의 시작이라 할 만하다. 범선 '갤리온'을 통한 무역은 상행위를 넘어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를 하나로 연결하며 거대한 문명의 교류를 이끈다.

산지니 | 304쪽 | 25,000원 | 2017. 06.



**돈 드릴로: 불안의 네트워크와 치유의 서사** 박선정 지음

〈화이트 노이즈〉, 〈코스모폴리스〉, 〈포인트 오메가〉, 〈언데일드〉, 〈추락하는 인간〉, 〈리브라〉 등 미국의 생존 소설가 돈 드릴로 소설을 포스트모더니즘과 최신 과학이론에 의거하여 분석, 연구한 책이다.

도서출판3 | 262쪽 | 18,000원 | 2018. 05.



**굿과 연극** 이윤택 지음

전라도의 씻김굿, 경상도의 오구굿, 제주도 칠머리당굿의 대본과 각 작품의 이해를 돕는 공연 개요, 극본 연출자의 말, 작품해설, 리뷰 등을 수록한 책. 민족의 의식 저편에 자리잡고 있는 흥과 한의 무늬와 실체를 만날 수 있는 책이다. 굿을 우리 연극의 원형으로 보고, 그 원형의 원리를 현대극에 적용시켜 극화함으로써 전통 의식인 굿과 연극의 조합을 이야기하고, 민중의 삶에서 굿과 연극이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를 탐색한다.

도서출판 도요 | 248쪽 | 13,000원 | 2017. 03.



**천두슈 사상선집** 천두슈 지음 / 심해영 옮김

중국근현대사상총서 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으로, 중국 신문화 운동을 주도했던 천두슈의 삶과 사상의 역정을 가장 잘 드러낸 글들을 골라서 묶은 선집이다. '정신계의 혁명'을 주창하며 〈신청년〉을 창간했던 천두슈는 말년까지 어떤 이념이나 조직도 교조적으로 맹신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산지니 | 578쪽 | 38,000원 | 2017. 10.



**시네페미니즘** 주유신 지음

영화라는 소재를 통해 페미니즘의 역사와 흐름, 그리고 새로운 대안까지 다양한 논의의 장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다. 영화는 한 시대의 가장 적나라한 욕망과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눈, 즉 '여성의 눈'으로 이런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고 세상에 대한 인식의 틀도 바뀌며 나아가 몸과 일상이 바뀐다.

호밀밭 | 496쪽 | 25,000원 | 2017. 12.



**노자 도덕경의 요체: 도덕지귀전석** 서응명 지음 / 박원숙 옮김

“조선 후기 경학자 서응명의 역작, 노자 도덕경 해설서가 번역과 전석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조선 후기 대표 경학자인 보만재(保晩齋)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의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에 대한 역작 『도덕지귀』을 번역하고 전석한 『도덕지귀전석』(정경주, 박원숙 국역 전석)을 “한국한자연구소 연구총서 04”로 출간했다.

도서출판3 | 498쪽 | 23,000원 | 2017. 03.



**‘디자인-안전을 말한다’** 최장락 지음

산업이 발달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어 디자인 및 문화예술을 통하여 디자인 이미지 제안과 계몽활동으로 산업재해와 안전판리의 문화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두손컴 | 156쪽 | 20,000원 | 2018. 06.



**라틴아메리카 흑인 만들기** 차경미 지음

라틴아메리카 독립사에서 백인에 가려져 있던 흑인 혁명가들의 존재를 돌아보고 그들의 역사적 공헌에 대해 재평가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책이다. 평등한 사회를 향한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집단적 저항이 독립의 밑거름이 되었음에도 역사는 피부색을 중심으로 흘렸고, 그 뒤편길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흑인 영웅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산지니 | 210쪽 | 17,000원 | 2017. 06.



**부산 원도심에서 사람을 만나다** 이수진 지음

부산 원도심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부산 원도심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도시 공간들을 생산하는 데 얽힌 힘들과 그 역학관계를 추적함으로써 부산이라는 도시를 사람들이 살기 적절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을 그려본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비온후 | 224쪽 | 15,000원 | 2017. 02.



**당당한 안녕** 이기숙 지음

죽음을 배우다

삶의 가장 마지막 과제인 ‘잘 죽는 것’에 대한 에세이. 죽음을 앞두고 해야 할 준비, 국내의 호스피스 시스템, 유가족을 위한 조건 등 모두가 외면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닥칠 죽음의 현실적 준비 방법과 정보에 대해 상세히 적었다.

산지니 | 262쪽 | 15,000원 | 2017. 09.



**한자어원사전** 하영삼 지음

(개정판)

2014년 처음 출간된 이후 한국 최초의 한자어원사전으로 호평을 받은 이 책은 한국의 한자 어원 해설의 근거를 제공하여 해설 수준과 한자교육 방법을 바꾸었다고 평가받아 왔다. 초판본에서 빠졌던 필수 한자를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조판하여 출판하였다.

도서출판3 | 1,052쪽 | 70,000원 | 2018. 01.



**영화로 만나는 동아시아** 백현연 지음

21세기 동아시아의 상황과 19세기 근대 서양 국가, 일본 제국주의를 영화의 풍경 속에서 읽어낸다.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경계,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와 격동의 중국, 중국과 대만의 특수한 정치적 지형 등을 다루며 동아시아의 어제와 오늘을 영화 속 이야기와 함께 풀어나간다.

2017년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산지니 | 270쪽 | 18,000원 | 2017. 06.



**Fall In Science** 차유화 외 16인 지음

- 2016 C.O.S 과학동아리 활동집

기안중학교 학생들의 1년 동안의 땀과 노력이 담긴 책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과학동아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들여다 볼 수 있다. 처음 시작은 과학실을 알아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학생들만의 프로젝트 활동, 외부 참여 활동, 일본 과학축전 참여까지 과학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른 과학동아리 활동의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공공작소 | 489쪽 | 25,000원 | 2017. 01.



**동중국해 문화권의 민가** 윤일이 지음

제주도, 규슈, 류큐(오키나와), 타이완 지역을 '동중국해 문화권'으로 묶어 이곳의 민가 전통건축을 분석했다. 북방계통이 주류를 이루는 한국 전통건축에서 제주 건축은 비주류였다. 지은이는 그런 제주 건축을 남방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보았다

산지니 | 292쪽 | 25,000원 | 2017. 02.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한다** 부길만 지음

언론학자이자 출판인인 부길만의 칼럼집. 현대인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시각각 뉴스를 접하고 신문, 방송 등의 매스미디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과 과제 등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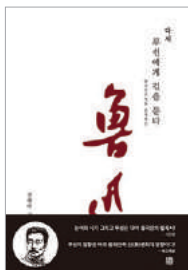
산지니 | 144쪽 | 10,000원 | 2017. 02.



**부산의 디자인문화 '예술에 혼을 담다'** 김다희, 최장락 지음  
<원로작가 서술대담록> -김봉진-

디자인-공예 교육의 산실인 1970년대 부산공예학교에 재직하셨던 작가님들 중에 우선적으로 중군화가로,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으며 부산 화단(畫壇)의 역사이며 산증인인 김봉진 원로 작가님의 일대기를 서술대담록으로 엮었다.

두손컴 | 88쪽 | 20,000원 | 2018. 06.



**다시 루쉰에게 길을 묻다** 김태만 지음

루쉰은 중국 문학의 또 다른 형식으로 잡문(雜文)이라는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시킨 인물이다. 그는 잡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진중하고 날카로운 비판정신과 함께 유쾌함과 풍자정신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후 현대 중국의 문학과 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베이징에서 루쉰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20년간 중국을 공부해오던 저자가 그동안의 연구를 정리했다.

호밀밭 | 240쪽 | 18,000원 | 2017. 08.



**발트3국의 언어와 근대문학** 이상금, 서진석 지음

미지의 영역 북동유럽의 발트3국에 대한 연구서로, 이 나라들의 언어와 근대문학에 대해 다룬다. 제1권 『발트3국의 역사·문화·언어』, 제2권 『독일발트문학과 에스토니아문학』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 역사 문화적 접근을 통해 발트 3국의 언어, 민족과 국민, 문학과 예술, 그리고 환경과 지정학적 위상 등을 밝힌다.

산지니 | 296쪽 | 20,000원 | 2017. 03.

### 비즈니스 일본어에서 일본어의 비즈니스 인터랙션으로 정규필 지음

‘일본어의 비즈니스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서로, 저자는 실제 일본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한국인이 일본인과 함께 일본어로 다양한 일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론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일본어교육학과 사회언어학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산지니 | 192쪽 | 23,000원 | 2017. 06.



### 까꼬막을 오르다 이바구를 만나다 부산문화재단 지음

마을과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시는 없지만 완전히 마을버스만을 다룬 단행본을 펴낸 도시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총서의 의미는 더욱 클 것이다. 부산 구석구석을 스며드는 마을버스를 타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흥미를 느낄 내용으로 구성됐다.

호밀밭 | 246쪽 | 10,000원 | 2017. 12.



### 선택 현정길 지음 진보로 부산을 새롭게 디자인하자

‘진보로 부산을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의 저자는 부산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교육운동을 두루 거친 사회운동가이다. 30여 년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진보정당의 미래와 새로운 부산 발전을 위한 제안을 정리하며 ‘시민사회와 노동, 교육의 혁신이 부산의 살길’임을 강조한다.

산지니 | 244쪽 | 15,000원 | 2018. 03.



### 초월명상과 기수련 김노환 지음

저자는 오랜 수련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닦은 수련가로 ‘기 수련’, ‘지식호흡’, ‘원근(遠近) 수련’, ‘호 하, 신평 수련’, ‘초월명상과 치유’ 등의 주제를 가지고 전통 수련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산지니 | 142쪽 | 12,000원 | 2017. 04.



### 연희단거리패의 공연사와 공연미학 김남석, 김문홍, 김 향, 김주연, 이연순 지음

창단 이후 30년 동안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한 연희단거리패의 연극 미학을 탐구한 책. 지성과 대중이란 서로 상반된 방향에서 서로 끌어당기고 튕겨나가려고 하는 구심력과 원심력의 팽팽한 긴장을 다섯 명의 필자가 정리하고 있다.

도서출판 도요 | 702쪽 | 50,000원 | 201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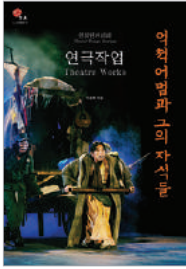


### 100개 한자로 읽는 중국문화 하영삼 지음 (개정판)

이 책은 한자가 갖는 특성과 효용성에 주목하여 ‘한자를 통한 문화 해설’을 시도했다. 특히 한자의 과학적인 어원에 근거해 그에 담긴 중국 문화의 배경과 의미를 파헤치고, 이를 오늘날의 문화로 연결하고자 했다.

도서출판3 | 346쪽 | 23,000원 | 201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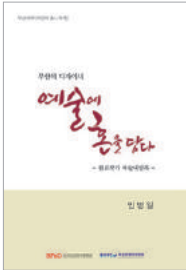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이윤택 지음

15여 년의 망명생활을 뒤로 하고 동베를린에 정착한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첫 작품 〈억척어멈〉의 대본과 공연기록이다. 반전극(反戰劇)이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서사극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형식적인 면에서도 역시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작품이다.

도서출판 도요 | 10,000원 | 2017. 11.



### 부산의 디자이너 '예술에 혼을 담다' 김다희, 최장락 지음 <원로작가 서술대담록> -민병일-

부산의 디자이너로 눈부신 활약을 하며 후학 양성을 위해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고 작품 활동과 지역봉사에 정열을 쏟으신 민병일 원로 작가님의 일대기를 서술대담록으로 엮었다. 사료를 채록하여 남겨놓는 것이 작가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부산의 공예디자인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은 부산 디자인의 저력을 더욱 더 굳건히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두손컴 | 136쪽 | 20,000원 | 2017. 05.



### 권학편 장지동 지음/송인재 옮김

장지동의 『권학편』은 중국근현대사총서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굴욕과 대격변을 겪고 있던 중국의 상황과 새로운 지식, 기술 습득의 필요성을 전하고 있다. 내편 9편, 외편 15편으로 구성되어 굴욕과 대격변을 겪고 있던 중국의 상황과 새로운 지식, 기술 습득의 필요성을 전하고 있다.

산지니 | 196쪽 | 18,000원 | 2017. 06.



###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의 독서안내

다치바나 아키라 지음/이진아 옮김

기술과 자연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1970년대쯤부터 거대한 지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복잡계, 진화 심리학, 게임 이론, 뇌과학 등의 새로운 지식 분야가 지금까지의 상식을 차레차레로 부수고 있다. '지식의 빅뱅' 이후 폭발적인 진보를 가져온 복잡계, 진화론, 게임이론, 뇌과학, 공리주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온 지식의 최전선을 탐색해보자!

인디페이퍼 | 332쪽 | 15,000원 | 2018. 01.



###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후지타 히사카즈 지음/박배근 옮김

전쟁범죄는 언제 처음으로 인정됐을까. 일본 국제법학자인 저자가 국제법을 토대로 전쟁법의 성립부터 전쟁범죄의 처벌에 이르는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폈다. 국가에 전쟁 피해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문제 등 앞으로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도 논한다.

산지니 | 264쪽 | 18,000원 | 2017. 04.



### 부산국제사진제 작품집 백석옥 지음

지금 이 시대의 사진을 아름다움의 역사에 따라서 분류해서 전시함으로써 우리들의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아름다움이 우리들의 사진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분류해 보는 전시 작품집이다.

두손컴 | 152쪽 | 30,000원 | 2017. 09.



### 저항의 도시, 타이베이를 건다

왕즈홍 외 지음 / 광규환, 한철민 옮김

화려한 관광지로서의 타이베이 대신 국가권력, 자본주의, 이성애주의 등 주류의 힘에 맞서는 저항의 도시로서 타이베이를 조명한 책. 정치적 권리를 위한 시위, 강제철거에 대한 저항 등 52곳의 현장을 '다크투어리즘'에 기반해 도보로 여행한다.

산지니 | 306쪽 | 20,000원 | 2017. 10.



### 재미있는 사찰 이야기

한정갑 지음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 사찰과 조형물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본격 사찰문화재 해설서. 저자는 전국의 전통 사찰을 답사하면서 사찰에 깃든 상징적 의미를 심도 깊게 풀어간다. 사찰 배치도에 담긴 불교의 교리와 의미, 사찰 조형물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문화재에 깃든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다룬다.

산지니 | 272쪽 | 18,000원 | 2017. 11.



### 패션, 영화를 스타일링하다

진경옥 지음

영화 속 의상들이 등장인물의 이미지 창조와 스토리 전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영화와 패션의 관계를 풀어낸다. 아울러 영화 속 의상이 패션계와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현상도 짚어준다. 영국 배우 콜린 퍼스의 수트 탭시가 돋보였던 <킹스맨>이 대표적인 예다. 이 영화 덕분에 국내 남성복 시장 매출도 증가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산지니 | 304쪽 | 19,800원 | 2017. 11.



###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김영진 지음

중국 근대불교학의 기원과 성장을 추적한 책. 동서양의 문물이 충돌하고 섞이기 시작한 근대, 중국 불교와 서양 학문의 만남으로 중국 근대불교학이 태어난다. 불교 원전을 연구하기 위해 문헌학이 도입되고, 역사학 방법론으로 불교사를 새로운 눈으로 써내려가며, 칸트와 니체 같은 서양 철학자의 이론으로 불교를 재해석 한다.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산지니 | 376쪽 | 25,000원 | 2017. 12.



### 점점 투명해지는 사나이

이재경 지음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 티쉬스쿨에서 뮤지컬 극작을 전공한 이재경의 극작품. 민족시인 윤동주의 삶을 조명한 <서시\_점점 투명해지는 사나이>에 이어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해수생체실험으로 절명하기 딱 하루 전의 시간을 붙잡은 작품.

도서출판 도요 | 104쪽 | 10,000원 | 2017. 04.



### 류스페이 사상선집

류스페이 지음 / 동중만 옮김

산지니 중국근현대사상총서 일곱 번째 작품으로 무정부주의와 평등사상을 설파한 중국 사상가 류스페이가 1903년부터 1908년까지 발표한 글 20편을 모은 책이다. 양저우의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류스페이는 과거에 낙방한 뒤 반청혁명에 뛰어들었다. 혁명 강령으로 '국가를 폐지하고 정부를 설립하지 않는다', '남녀 사이에 절대적 평등을 실행한다' 등을 내세웠다.

산지니 | 370쪽 | 32,000원 | 2017. 12.



**KNOTS** CSLC(라캉과 임상 연구센터) 옮김  
Depression

라캉 정신분석을 지향하는 한글 학술지. 라캉 정신분석을 지향하는 임상과 그 이론적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라캉과 임상연구센터(Center for Studying Lacan and Clinic)에서 발간하였다.  
산지니 | 192쪽 | 20,000원 | 2017. 12.



**도시, 美를 입히다** 티엘엔지니어링, 티엘갤러리 지음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나름의 시선으로 바라본 도시의 미에 대한 글과 미술작품을 공공미술전문가이자 티엘갤러리 관장인 구본호 씨가 전시로 기획했고 그 내용을 책임 편집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모두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도시의 미를 살펴보는 이 책은, 무심코 지나치기 십상이었던 우리의 주변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호밀밭 | 352쪽 | 18,000원 | 2017. 01.



**오토바이로 모기를 잡아라** 김정렴 지음

광고보다 재미있는 세계의 공공캠페인  
자발적 참여와 개인미디어를 통한 확산으로 이어지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공공캠페인의 세계!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캠페인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이 책은 세계 곳곳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낸 화제의 공공캠페인을 사례별로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인디페이퍼 | 296쪽 | 15,000원 | 2018. 04.



**대학, 정치를 배우다** 정천구 지음

'대학(大學)'은 "큰일을 위한 학문 또는 큰일을 배운다"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때 큰일이란 바로 통치, 정치다. 그런 큰일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능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 적고 있는 책이 『대학, 정치를 배우다』이다.  
산지니 | 420쪽 | 30,000원 | 201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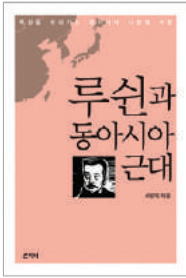
**논어, 그 일상의 정치** 정천구 지음

논어 전편을 순우리말로 해석하고, 주석을 달아 한자 하나하나의 속뜻과 말뜻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면서 자구 해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행간의 숨은 뜻은 '어짚'을 통해 일상에서 정치를 행하려 했던 공자의 실천사상을 증심축으로 일관되게 해설하고 있다.  
산지니 | 640쪽 | 35,000원 | 2018. 04.



**나는 말이 좋아서 일합니다** : 고 박경근·이현준 열사투쟁백서  
고 박경근·이현준 열사 투쟁 백서발간위원회 지음

2017년 5월 27일과 8월 1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소속 두 명의 마필관리사가 세상을 등졌다. 국내 최초 말마사지사인 고 박경근 씨와 성실했던 청년 고 이현준 씨의 죽음으로 마사회의 불합리한 고용구조와 마필관리사의 처우상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책은 마필관리사들의 85일간 투쟁을 기록한 문서와 사진, 이미지들을 취합해 만든 아카이브 북이다.  
빨간집 | 393쪽 | 18,000원 | 2018. 05.



**루쉰과 동아시아 근대** 서광덕 지음

동아시아 담론에 천착한 중국학 연구와 중국 근대문학의 거장 루쉰을 두루 번역해온 서광덕의 첫 저서. 이 책은 동아시아 근대를 통해 새로운 문명론적 비전을 추구했던 약 20년 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이문가들의 문제의식을 계승정리하고, 루쉰의 사상을 통해 이를 규명해나간다.

산지니 | 379쪽 | 28,000원 | 2018.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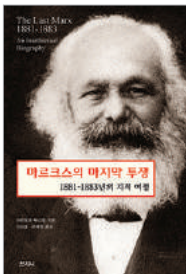


**북중접경지역 5000리 길** 강동안 지음

그곳에도 사람이 있었네

이 책은 그동안 북중 접경지역을 수십 차례 오가며 만난 북녘의 사람들을 통일의 눈으로 담아냈다. 같은 장소라도 다른 계절에 가면 바람에 실려 오는 냄새가 달랐다. 분단의 깊은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북중 접경지역 통한의 길에서 북녘의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보려 애썼다. 그곳에도 사람이 있었다. 같지만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분단의 사람들이…….

너나드리 | 432쪽 | 21,000원 | 2017. 08.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마르셀로 무스토 지음/강성훈, 문혜림 옮김

이탈리아 출신 사회학자 마르셀로 무스토가 '마르크스-엥겔스 전집'을 근거로 카를 마르크스 말년의 지적 여정을 되짚어본다. 러시아, 아시아, 무슬림에 대한 관심 등에서, 역사에 대한 다선적인 이해로 혁명에 대한 이상을 더욱 단단히 다진 그의 모습을 확인한다.

산지니 | 236쪽 | 20,000원 | 2018. 05.



**사진으로 떠나는 한자역사기행** 하영삼 지음

한중일과 베트남을 아우르는 '한자문화권 문화'의 이해를 위한 길잡이로서 '한자의 역사'를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통해 여행하는 형식으로 저술되었다. 시기적으로는 발생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지역적으로는 한중일 삼국과 베트남 및 중국내 소수민족까지를 섭렵한 책이다.

도서출판3 | 287쪽 | 22,000원 | 2018. 03.



**'디자인-출산장려를 말하다'** 최장락 지음

<부산국제디자인제 작품집>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국가문제가 됐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35개 국가 중 꼴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224개국 중에서도 220위로 꼴찌 수준이다. 이에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작은 디자인 표현으로 미술, 디자인을 통하여 출산 장려에 대한 문제를 그래픽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두손컴 | 152쪽 | 20,000원 | 2017. 05.



**중국 경제법의 이해** 김중우 지음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국경제법의 현단계 발전현황을 알아보고 어떠한 법리적인 쟁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해 본다.

산지니 | 552쪽 | 35,000원 | 2018. 06.





**근현대 중국 이상사회론** 이연도 지음

이 책은 근대 이후 중국에 등장한 다양한 이상사회론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의미를 철학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이상사회는 정치철학의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현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열쇠가 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시진핑이 '중국몽(中國夢)'을 제시하며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역사적 맥락과 사상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산지니 | 320쪽 | 23,000원 | 2018. 06.



**현대소설의 역사의식과 기억투쟁** 항국명 지음

이 책은 현대소설이 담아낸 개인의 초상과 사회의 풍경을 역사의식과 기억투쟁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했다. 현대소설이 드러낸 이 의식적인 싸움은 작중인물들이 당대를 살기 위해 펼친 고투일 뿐만 아니라, 누가 기억하고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현대작가들이 뛰어난 군비경쟁이기도 하다. 본서는 현대소설이 그 싸움의 과정에서 이제는 잊어버린 실천을 발견하는지, 지금은 잃어버린 기억을 새로운 잠재력으로 부활시키는지 비판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신생 | 360쪽 | 15,000원 | 2018. 01.



**유전자감식과 법생물학** 리차드 리 지음/전병원 옮김

이 책은 과학수사의 기초가 되는 유전자감식과 법생물학 전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도록 지었다. DNA 분야에서 수행되는 유전자 감식과 법생물학적인 분석을 다루고 법형정학 및 법과학적 DNA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장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기술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 유전자감식과 법생물학의 개념, 다양한 기법과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유용하다.

에린원 | 541쪽 | 39,000원 | 2017. 01.



**작은 공간 큰 이야기 7** 문화매개공간 씬 지음

부산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사 내에 위치한 문화매개공간 씬은 부산교통공사가 후원하고 문화예술사업단 Biki가 운영하는 재미난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 '쌈수다'라는 재미난고 독특한 시간이 펼쳐지는데 부산 지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해 온 3040 세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주로 초대된다.

호밀밭 | 200쪽 | 10,000원 | 2018. 02.



**중용, 어울림의 길** 정천구 지음

『중용, 어울림의 길』은 중용 본연의 내용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중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고전이 되었으며 저자는 누구인지 등 우선 그 근본을 묻고 답함으로써, 처음 읽는 사람은 물론 이미 정독한 사람들까지도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산지니 | 340쪽 | 23,000원 | 2017. 02.



**한국역대한자사전총서** 하영삼, 왕평 외 지음

(표점 교감 전자배판) / 전16권

조선에서 근대까지의 한국 대표 한자사전, 교감과 표점을 거친 디지털 조판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한국역대한자사전 표점교감 전자배판 시리즈” 14,500쪽 총 16책.

도서출판3 | 13,308쪽 | 990,000원 | 2017. 08.



###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생물학

장 보수Zhang Boshu 지음 / 오용득 옮김

이 책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를 담고 있다. 하나는 중국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 공산당 시스템에 대한 허구성의 폭로이며,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대리보충하기 위한 사회생물학의 주장이다. 저자는 중국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부패를 위한 도구로서 개혁개방정책을 이용했으며, 그것이 중국인민을 위협했던 것이 아니라는 위약적인 면을 꼬집고 있다.

책읽는저녁 | 264쪽 | 18,000원 | 2017. 09.



### 지역문학에서 지역문화 연구로 남승우 지음

『지역문학에서 지역문화 연구로』는 크게 2부로 나누어져 구성 되어 있으며 지역문화론 지역문학 연구에 나타나는 탈근대성의 양상, 부산학과 부산지역문학 연구의 방향성, 지역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전망 | 272쪽 | 14,000원 | 2018. 01.



### 꽃 피네 조기종 외 지음

부산소녀상지킴이 예술행동 사진집

소녀상은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작은 조형물에 불과하지만, 우리 근대사의 아픈 일본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하고 일본에 대한 저항과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꽃 피네』는 부산소녀상지킴이 예술행동(부산민예총, 풍물굿위원회)이 매주 일본 영사관 앞에서 2017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한 행사를 기록한 사진집이다.

전망 | 128쪽 | 18,000원 | 2017. 12.



### 2016, 2017 사진기록 부산시민촛불 광장

진현옥, 전상규, 이병철 지음

유난히도 춥고 바람이 매서웠던 지난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 박근혜 정권 퇴진과 적폐청산을 위해 거리를 광장으로 만들고, 촛불이 노도 같은 햇불이 되는 참으로 역동적이었던 부산시민 촛불! 시민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당당히 등장하여 '민주주의적 참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세우던' 소중한 과정을 3인의 사진가가 발과 눈으로 새긴 부산시민촛불 사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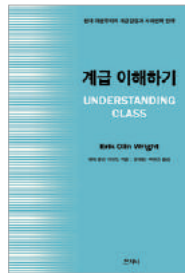
예린원 | 387쪽 | 29,000원 | 2017. 12.



### 지역연극에 죽고 부산연극에 살고 김문홍 지음

현 연극 실태에 대해 돌아보고 지역 연극의 흥대에 대한 반성을 촉구, 지역 연극으로서의 부산 연극에 대한 무한 신뢰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작가의 생각을 담고자 한다. 연극 정책이나 연극 환경, 소극장 활동과 방향, 연극 축제와 행사 등의 방향 설정을 조언하는 글들이 많다. 작가의 관심과 애정이 담긴 이 책이 부산연극을 비롯한 지역연극의 관심 촉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출판 해성 | 301쪽 | 20,000원 | 2017. 12.



### 계급 이해하기 에릭 올린 라이트 지음 / 문혜림·곽태진 옮김

‘계급’은 여전히 논쟁적인 개념이다. 혹자는 계급의 죽음을 선언하는가 하면, 다른 이는 현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주요 개념으로 본다. 미국의 유명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가 새롭게 계급 개념을 조명한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을 바탕으로, 막스 베버 등 비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의 불명등 이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나타난 계급의 모호성도 다룬다.

산지니 | 412쪽 | 28,000원 | 2017. 01.



**공적 공간에서의 사적인 기록** 남승우 지음

부산문화재단의 수장을 맡았던 부경대학교 남승우 교수가 2011년 2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단 하루의 공식 휴가도 없이’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겪었던 좌절과 보람, 문화와 예술인에 대한 애정과 비판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일기 형식의 기록.  
전망 | 288쪽 | 14,000원 | 2017. 12.



**영화장화**

하스미 시게히코, 구로사와 기요시, 아오야마 신지 지음 / 조정민 옮김  
일본 영화계를 견인하는 스승과 두 제자의 대화를 담은 책이다. 제목 그대로 영화에 대한 긴 이야기이다. 그러나 긴 이야기라고 독자에게 이 책은 지루함을 주지는 않는다. 이 책은 가볍게 접근하면서도 우리의 무릎을 치게 만드는 재기 발랄함이 대화 중간에 숨어 있다. 아오야마 신지는 이것을 “경쾌하고도 스피디하게 흐르는 마치 가슴을 파고드는 활극”이라 기록한다.  
책읽는저녁 | 296쪽 | 18,000원 | 2018. 04.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박영미 지음

‘부산여성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박영미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그간의 활동과 글을 정리하여 펴낸 책이다. 늘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만나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다 보니 박 대표의 관심은 여성노동자,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등으로 끊임없이 그 범위가 넓어졌다.  
산지니 | 226쪽 | 15,000원 | 2018. 02.



**2017 바람직한 과학을 위한 길 찾기** 지구탐험대 지음

2017년 12월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세계지질공원 부산과학체험전의 프로그램 가이드 책으로 여러 가지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담았다.  
참과학 | 84쪽 | 5,000원 | 2017. 12.



**지금, 이곳에 희망은 있는가?** 남승우 지음

현실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작가가 근원에 대해 질문하고 끊임없이 고민한 생각을 교회, 대학, 지역문화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비평가로서의 역할, 교육자로서의 고민,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인으로서의 생각이 담긴 이 책은 우리에게 지금 현실을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 것인지를 알려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무엇을 건네 줄 것이다.  
도서출판 해성 | 232쪽 | 15,000원 | 2018. 01.



**중국이란 코끼리 다루기** 조광수 지음

저자는 중국이 ‘코끼리’ 같은 나라라고 말한다. 중국은 하나의 모습으로 단정할 그렇게 녹록한 나라가 아니다. 사상과 문화적 전통이 깊고 두텁고 공자와 노자의 사상을 비롯한 오랜 제자백가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에 반영되고 있다. 저자는 40년의 중국 공부를 정리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호밀밭 | 264쪽 | 15,000원 | 2017. 08.



## 강강이마을 100년의 울림: 역사

강강이예술마을사업단 지음

부산 영도구 대평동(현 남항동)에는 근대 조선 수리업의 메카였던 일명 '강강이마을'이 있다. 이름만큼이나 생소한 이곳은 선박에 붙은 녹이나 조개류를 제거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릴 때 나던 '강강' 소리를 본 따 강강이마을로 불린다. 이 책은 강강이마을을 역사, 산업, 생활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살펴보는 총 3부작 기획 중 첫 번째 결과물이다.

호밀밭 | 214쪽 | 10,000원 | 2017. 03.



## 성매매 안 하는 남자들 1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기획) 지음 / 허주영 역음

'수요'의 차원에서 성매매를 이야기하는 남성 모임 <수요자 포럼>의 첫 번째 책. 이 책의 남성 필자들에게는 성매매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성매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의 순간마다 성매매와 분리되지 않는 남성문화의 면면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룰살롱으로 향하던 회식 자리에서, 섹스 경험 여부로 남성성을 평가하는 남성 커뮤니티에서, 불편함은 느끼지만 포르노를 놓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도…….

호랑이출판사 | 163쪽 | 12,000원 | 2018. 05.



##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지음 / 김효전 옮김

카를 슈미트, 헤르만 헬러,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등 16명의 독일 법학자들의 논문 31편을 실었다. 총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헌법 이론, 국가이론, 헌법사, 비교헌법론, 헌법의 보장 등을 다룬다. 카를 슈미트 전문 연구자인 김효전 교수가 50여 년간 수행한 연구의 집대성이다.

산지니 | 1,184쪽 | 80,000원 | 2018. 04.



## 강강이마을 100년의 울림: 산업

강강이예술마을사업단 지음

한국 근대조선의 발상지 '강강이마을'.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그동안 외부에 제대로 알려진 바 없던 강강이마을의 수리조선 산업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강강이마을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한다. 지역의 청년문화인들이 적극 결합해 함께 했고 선박 관련 전문가이자 해양문학상 수상 작가인 소설가 문호성의 특별원고도 함께 실었다.

호밀밭 | 272쪽 | 10,000원 | 2017. 10.



## 강강이마을 100년의 울림: 생활

강강이예술마을사업단 지음

한국 근대조선의 발상지 '강강이마을'. 3권 생활 편에서는 총 스물여섯 명의 필진이 참여하였다. 소설가, 다큐멘터리 감독, 영화 평론가,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마을을 직접 찾아 각자 자신만의 시각으로 강강이마을을 관찰했고 마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었다.

호밀밭 | 224쪽 | 10,000원 | 2018. 03.



## 통일수학여행

강동완, 임창호 지음 / 전영현 사진

해파랑길에서 만나는 통일

이 책은 남북한과 제3국 출신 청소년들이 부산 해맞이공원에서부터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해파랑길 770km를 걸으며 통일을 사색하는 여행기다. 진짜 여행이란 본디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아이들에게 해파랑길을 걸으며 통일을 찾아보라 했다. 하지만 그 길 어디에도 통일은 없었다. 대신에 아이들은 분단의 길에서 스스로가 통일이 되었다. 그때 그리고 나, 바로 우리가 통일이다.

너나드리 | 225쪽 | 21,000원 | 2017. 09.



**플리아모리** 후카미 기쿠에 지음 / 광규환, 진효아 옮김  
 플리아모리의 개념과 실제로 플리아모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소개한 책. 쉽고 정확하게 다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리아모리 입문서'이다. 일본의 사회인류학 전공자 후카미 기쿠에가 미국에서 만난 플리아모리리스트들은 어떤 모습일까? 생생한 현장조사 에세이를 통해 플리아모리의 실체로 다가간다.  
 해피북미디어 | 235쪽 | 15,000원 | 201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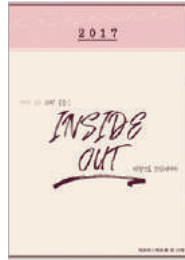
**고독한 말들** 고현철 교수 추모사업회 지음  
 그는 우리에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충격 요법을 안겨주었고 그로 인해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회는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정당성이 의심 받고 있으며 교묘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고현철 교수는 시인이자 학자로서 끊임없이 읽고 쓰는, 강한 정신의 근육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 선집은 그가 써 내려간 글 중 일부를 간추려 그의 문장 사이에 스며 있는 고민과 반성의 흔적을 아로새기고자 내놓은 것이다.  
 전망 | 256쪽 | 15,000원 | 2017. 08.



**핵, 이전 안녕!** 김해창 외 지음  
 세계의 핵발전소 사고의 실상을 밝히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의 핵발전 실상의 허구와 진실, 월성 1호기와 같은 노후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핵발전소 해체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전 국민적인 관심과 감시가 동시에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다.  
 도서출판 해성 | 272쪽 | 20,000원 | 2017.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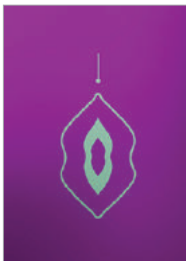
**엄마의 엄마** 강동완 지음  
 중국 현지에서 만난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국내 최초 중국 현지 거주 탈북여성의 삶을 담은 책,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여성 100명을 현지에서 직접 인터뷰한 그녀들의 이야기다.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거주 탈북여성……. 떠났다는 표현은 어찌면 그녀들에게는 사치스러운 말이었다. 어미로 살아가는 그 삶속에서 그리운 엄마를 떠올렸다. 누군가의 딸이자 또 누군가의 엄마여야 했다. 엄마에게 가는 길은 가깝고도 멀었다. 통일은 엄마다.  
 너나드리 | 450쪽 | 22,000원 | 2018. 05.



**Inside Out** 차유화 외 15인 지음  
 - 2017 C.O.S 과학동아리 활동집  
 기안중학교 학생들의 1년 동안의 탐과 노력이 담긴 책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과학동아리를 만들어가 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들여다 볼 수 있다. 처음 시작은 과학실을 알아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학생들만의 프로젝트 활동, 외부 참여 활동, 일본 과학축전 참여까지 과학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른 과학동아리 활동의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꿈공작소 | 450쪽 | 25,000원 | 2018. 01.



**라스트 사무라이, 2017 TOKYO** 김민수 외 15명 지음  
 매년 여름 일본의 도쿄에서 개최되는 '2017 청소년을 위한 과학제전 전국대회'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참가신청을 위한 실험 아이디어 선정부터 그 준비과정 및 과학축전의 참관기가 함께 실려 있다.  
 참과학 | 172쪽 | 10,000원 | 2017. 10.



**비엔나 호텔의 야간 배달부** 임은주 지음

영화 속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성폭력, 성적대상화와 같은 사실이 숨겨져 있다. 영화 감독의 의도와는 별도로 영화 속 섹스 이야기를 유니크한 시선으로 재구성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성적 주체성을 이야기 하기에 영화는 좋은 수단이다. 당하고 받아들이는 수동성 대신 영화의 세계에서 받아치고 진격하며 도발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보았다. 영화는 '연인'에서 '안토니아스 라인'까지 12편을 선택했고 첫경험이나 성폭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퀄리브리엄 | 120쪽 | 11,000원 | 2017. 11.



**깨달음** 김중원의 지음

동양 전통 사상에서 펼쳐지는 사유들을 정리해서 들려주는 동양 철학 이야기. 학문적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갈고닦은 저자는 동양의 사유들을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변주하여 들려준다. 선인들의 사상은 현대인들에게 느낌과 비유로 행복해지는 '깨달음'의 기술로 다가온다.

산지니 | 304쪽 | 25,000원 | 2018. 05.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보다** 강동완 지음

국내 최초 통일여행 안내서 - 통일 교두보 부산의 이야기!!! 이 책은 '통일이아 놀자'라는 주제로 우리의 일상을 통일의 눈으로 다시 보자는 시도다.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분단의 유적을 과거와 기억의 역사로 물어두지 않고 일상에서 느끼는 산역사의 장으로 다시 재구성 하자는 것이다. 그 첫 출발지는 바로 부산이다. 어쩌면 부산은 통일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지켜진 땅일지도 모른다. 부산은 통일을 위해 남겨진 땅이라 부르고 싶다.

너나드리 | 176쪽 | 15,800원 | 201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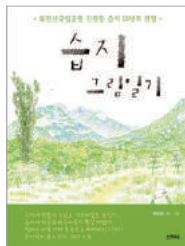


**공존**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편저

청소년을 위한 시민인성교육 1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공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의 시민으로 살기 위한 인성을 가꾸는데 보탬이 되려는 게 이 책의 기본적인 의도다. 이 책으로 서로 대화하고 이 책의 질문에 답하면서, 왜 그렇게 답했는지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자.

소요-You | 160쪽 | 12,000원 | 2017. 02.



**습지 그림일기** 박은경 지음/그림

북한산국립공원에 있는 진관동 습지를 관찰하며 쓴 그림일기. 2005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습지 생태 변화와 그곳에 사는 다양한 생물을 곁에서 지켜보며 꼼꼼히 써내려간 기록이다. 참개구리가 웅덩이에 뛰어드는 소리, 둥지에 가지런히 놓인 멧비둘기 알, 눈처럼 날리는 버드나무 씨앗 등 습지가 들려주는 생명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산지니 | 176쪽 | 16,000원 | 2018. 06.



**통일, 에라 모르겠다** 강동완, 유정임, 임수진 지음

한류로 만나는 남북청년 통일프로젝트

<한류, 북한을 흔든다>라는 제목으로 분단조국의 청년PD들과 함께 만든 라디오 다큐멘터리는 <뉴욕페스티벌>,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방송 제작과정의 순간순간을 오롯이 담았다. 통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남북 청년들이 말한다. “통일, 에라 모르겠다. 고민하지 마.”

너나드리 | 380쪽 | 17,000원 | 2017. 03.

### 효사상과 불교 도웅저음

경남 거제에 있는 장흥사 주지 도웅 스님이 집필한 책이다. 윤리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윤리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과 『효경(孝經)』에 의하는 한, 그것은 바로 효(孝)라고 말한다. 불교 경전이 담고 있는 효에 대해 설명했다. 산지니 | 312쪽 | 18,000원 | 2017. 09.



### 변화의 힘 강영환 외저음

도요문학무크 열한 번째 책.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라는 혼란 한가운데서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이 어떻게 시대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담았다. 촛불민심으로 확인한 저항 의식과 변혁에의 열망이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탐색하고, 우리가 경험한 '축제가 된 혁명과 일상이 된 정치'로 발전해 있는 광장 민주주의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

도서출판 도요 | 248쪽 | 13,000원 | 2017. 06.



### 2017 모여서 나누고 어울림 권홍진 외 10명저음

- 2017 대한민국 과학교사 창작실험 교류회 모나올

매년 겨울에 열리는 참과학의 과학실험 교류회인 모나올의 내용을 담아 놓은 책이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모나올은 전국의 과학교사들이 새로운 실험을 '모여서 나누고 어울리는' 장으로 많은 과학교사들이 참가하여 왔다. 올해도 많은 과학교사들이 모여서 새로운 창작실험을 나누고 그와 함께 어울림의 시간을 나누었던 모나올의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참과학 | 64쪽 | 10,000원 | 2017. 12.



### 시민의제사전 2018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편저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안전-물과 원전”이다. 물의 공공성, 부산 해수담수화 사업, 핵과 안전 등에 관한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부산 시민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시민들이 바라본 지역의 수돗물 정책과 건강권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다.

소요-You | 152쪽 | 13,000원 | 2018. 01.









전자책

**누구나 할 수 있는 40만원으로 떠나는 일본여행** 윤라현 지음

40만원으로 다녀오는 4박 5일 간의 일본 여행! 여러 차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저자의 경험에서 얻은 일본 여행의 노하우를 담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저렴하지 않은 일본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북이 될 것이다. 단순한 정보의 안내가 아닌 실제로 다녀온 여행의 준비과정을 통해 일본 여행을 계획을 세우는 방법, 여행의 이야기를 통해 계획에 따른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준다.

꿈공작소 | 105쪽 | 3,000원 | 2017. 06.



**길 떠나는 자에게 세상이 보인다** 하원준 지음 / 사진 - 길을 걷다 3

이 책은 저자가 오랜 기간 홀로 여행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삶의 이야기이다. 여행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길을 걸으며 맞이하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생각하게 한다. 나아가 여행이란 무엇이며 여행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지 답답하게 돌아본다.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작업이다.

느림북 | 288쪽 | 15,900원 | 2017. 10.



**대학 합격으로 가는 자기소개서 핵심 공식** 최정곤 지음

수년간의 입시지도 현장에서 얻은 자기소개서 적는 노하우를 담은 책. 학생들의 활동과 경험을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담을지를 알려주는 좋은 안내서이다. 실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작성 예시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꿈공작소 | 172쪽 | 10,000원 | 2017. 07.



**주역 삼태경에 빠지다** 이해수 지음

쉽고 재미있는 셀프주역 해설서. 3단계(주역원문해설-저자해설 보충-실증사례열거)의 과정을 명쾌하게 서술하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의 운세, 시험 합격운, 투자 이익 여부, 이동 수, 사업운세 전망, 인간관계형성 등 가까운 미래를 알고 싶거나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대나무 8괘를 활용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

<부록중정> 1. 주역을 볼 수 있는 대나무 8괘 2. 고유번호 간단표

무량수 | 610쪽 | 30,000원 | 2017. 02.



**한자의 비밀** 조옥구 지음

한자의 신비, 한자의 설계도, 한자의 기원을 밝힌 최초의 한자학 개론서. 5천년이나 오래 되었지만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그런 모양과 그런 음가를 갖는지 알 수 없어 어렵기만 했던 한자. 학습에 부담만 되다며 배우지 말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한자에 대하여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자의 기원을 일목요연하게 밝힌 한자연구서.

북치는 소녀 | 296쪽 | 20,000원 | 2017. 11.



**세계지도(행정)** 편집부

한글과 영문이 같이 표기된 <세계지도>이다. 1:40,000,000의 지도로 4x6 사이즈(1050mmX750mm)의 전지 1매에 담은 유럽, 미국, 아시아, 아메리카의 정치구분도이다. 각 국가별로 다양한 색상(정치구분)으로 표시하여 쉽고 빠르게 국가를 구분할 수 있다. 지도 내 별도로 유럽을 1:14,100,000으로, 미국을 1:18,300,000으로 확대 수록하여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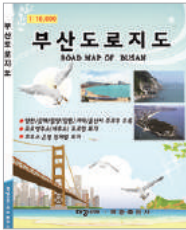
도서출판 스토리팜 | 1쪽 | 7,000원 | 2018. 04.



**아생의 땅 아프리카** 강중구 지음

지리학을 전공한 저자가 3회에 걸쳐서 아프리카 배낭여행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자연과 문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기록한 책이다. 배낭여행기이자 교양도서로서 아프리카의 지리, 문화, 풍물, 주민들의 생활상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프리카로 배낭여행이나 패키지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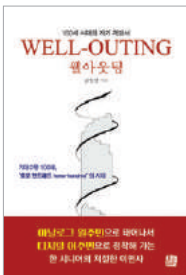
육일문화사 | 272쪽 | 17,000원 | 2017. 08.



**부산도로지도** 편집부 지음

부산광역시를 1:10,000의 축척으로 상세히 제작된 도로지도 책자이다. 주요 관공서 및 행정기관이 표기되었으며,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창원시, 거제시, 울산광역시 주요부가 표기되었다. 전국고속도로와 부산갈맷길도 수록하였다.

해광출판사 | 189쪽 | 28,000원 | 2018. 01.



**WELL-OUTING 웰아웃팅** 김일철 지음

웰빙의 관점에서 삶을 돌아보고 웰다잉을 위한 점검이 필요할 때, 다시 말해 프리미엄 에이징을 위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파온 우물(웰)에서 벗어나야만(아웃팅) 한다.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프리미엄으로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지 치열한 고민과 모색이 필요할 때다.

호밀밭 | 212쪽 | 15,000원 | 2018. 02.

기타





**성경동행: 신약편** 강문구 지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원문을 가급적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성경의 곁에 두고 성경과 함께 정독하며 묵상할 수 있는 책을 구상했다. 그 두 번째 책인 신약편에서는 4복음서를 종합해서 본 예수의 생애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총 5부 36장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호밀밭 | 484쪽 | 18,000원 | 2017. 04.



**임모틀맨1** 네빌고다드 지음/이상민 옮김

임모틀맨은 네빌고다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강의들을 마가렛 부름 여사가 묶은 책이다. 책에서는 우리가 살아란 꿈을 원하는 모습으로 꾸는 방법인 “법칙”과 살아란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내부의 거대한 자아가 깨어나는 “약속”에 대해 설명한다. “법칙”은 일상을 살면서 많은 소망을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약속”은 항상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언뜻 언뜻 던져지는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영감을 준다.

서른세개의 계단 | 288쪽 | 13,500원 | 2017. 12.



**조선의 비전무예 호패술** 도기현 지음

저자는 어릴 적 전통무술에 매료되어 평생 무예를 수련하고 연구 중인 전통무예가이다. 그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인 호패술을 국내 최초로 책으로 엮어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우리가 일상적이며 실용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호밀밭 | 108쪽 | 13,000원 | 2017. 12.



**별 탈 없이 산다** 김유리 지음/배민기 그림

상, 하

파격적으로 수영아류를 재해석한 만화. 개성 있는 수영아류의 캐릭터들은 수백 년 동안 수영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학과 풍자는 인물들의 사연과 사건이 만들어내는 코믹물로 전환된다. 장르를 넘어선 이러한 탈바꿈은 소중한 전통문화를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이다.

호밀밭 | 96쪽 | 각권 7,000원 | 2017. 12.



**La Vita e Bella** 스카웨이커스 지음

- 인생은 아름다워

2017년 활동 10년째인 스카웨이커스가 2집 [The Great Dictator]를 발표하고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3집 [La Vita e Bella]를 선보인다. 이 사회를 향한 강렬한 메시지를 담았던 2집보다 훨씬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3집 앨범이지만, 결국 두 앨범은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다. 3집 앨범에는 스카웨이커스의 지난 10년 역사를 담은 화보와 멤버들의 마음이 담긴 짧은 글도 함께 실었다.

호밀밭 | 240쪽 | 20,000원 | 2017. 08.



**내 방구같은 만화** 기묘나 지음

《곰팡이에 대처하는 방법》, 《즐거운 산책》 등 독창적인 표현으로 20대 여성, 백수, 독립생활자로서의 경험을 만화로 기록해 온 기묘나의 첫 번째 장편 그래픽노블. 《내 방구같은 만화》에는 2-30대 독거 여성, 아르바이트 생활자, 크고 작은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와 진한 우정을 나누는 경험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호랑이출판사 | 204쪽 | 13,000원 | 2017. 01.



### 구속사와 히브리서 김인규 지음

(초보를 떠나서 장성함으로 나아가자)

본서의 대상 독자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성도님들이고, 집필목적은 본서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서로 말씀을 나누는 교재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필자 또한 신학 비전공자로서 상기 내용들을 가급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두손컴 | 580쪽 | 20,000원 | 2018. 02.



### 세상 속 복음의 향기 강문구 지음

오랫동안 인본주의와 인간해방에 대한 관심으로 정치학을 연구 해온 저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통찰한 이 책은 앞서 펴낸 저자의 성경공부 이야기 <성경동행-구약편>과 <성경동행-신약편>에 이은 3부작 마지막 결과물이다.

호밀밭 | 216쪽 | 14,000원 | 2018. 05.

## 출판사 안내

가나다순

출판사 안내 ... 117

출판사별 신간도서 리스트 ... 124



**공공작소**

윤라현 대표

T. 010-2595-7980  
E. rhyn77@daum.net

A. 부산시 사하구 윤공단로56번길 15

공공작소는 '책으로 이루는 나의 꿈'이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나만의 책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에 있는 1인출판사이다. 일반적인 개인이 넘기 힘들었던 기존 출판사의 문턱을 낮추어 보다 쉽게 책을 만들고 싶은 꿈을 이루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서출판 너나드리**

강동완 대표

T. 010-6329-6392  
051-200-8790E. simple1@hanmail.net  
A. 부산시 사하구 대대로 381길 101-1406호

도서출판 너나드리는 통일 북한 분야 1인출판사다.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너, 나 하며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 북한 분야 책을 통해 하나의 길을 만들어 간다. 전문 서적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통일을 생각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양서를 통해 일반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수익금은 관련도서 연구 출판 및 통일기금으로 활용한다.

**느림북**

하승원 대표

T. 070-7661-8349  
E. slowbooks@naver.com

A.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 165번길 82

느림북 출판사는 정신없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여유를 찾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진정한 웰빙 문화를 찾고자 설립된 1인출판사다. 삶의 향기가 가득한 인간 중심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새롭게 창조하고자 한다.

**도서출판3**

정우진 대표

T. 070-7737-6738  
010-9663-6738E. 3publication@gmail.com  
A.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 192-1번지

도서출판3은 한자와 동양문화 관련 학술서적의 출판을 위주로 하는 부산에서 시작된 1인 출판사다. 이제는 한자와 동양학 관련 문물을 넘어서 서양 문학 및 문화와 관련된 학술서적도 출판하고 있다.

**도서출판 도요**

조명숙 대표

T. 010-2357-5244  
E. doyo2009@hanmail.net

A. 부산시 기장군 이천6길 2

도서출판 도요는 열악한 지역 출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출판 문화에 일익을 담당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서 문을 열었다. 도요상상총서와 도요예술총서를 통해 문학과 연극 관련 도서를 주로 발간하였으며, 우리 시대의 중요한 예술 담론을 생산해 내고 있으며, 지역 문학운동의 일환으로 도요문학무크를 연 2회 발간, 2018년 하반기까지 14호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서출판 두손کم**

최장락 대표

T. 051-805-8002  
E. doosoncom@daum.net

A.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35, 301 (부전동, 삼성빌딩)

도서출판 두손کم은 1997년 12월에 출판등록하여 전문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기획출판을 하고 있다. 문학 작품 및 전문미술작품집은 물론 에세이와 월간, 계간, 잡지 등을 출판하고 있다.

**리딩소년**

천성호 대표

T. 0303-3447-3855(fax)  
E. mora0012@gmail.com

A.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 995번길 17

오랫동안 북리뷰어로 활동해온 대표(작가)의 넉넉함을 그대로 반영한 1인출판사. 부산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전국을 오가며 책을 홍보하고 있다. 현재는 자신의 글만을 출판하고 있으며, 출간 장르는 모두 에세이이다.

**도서출판 무량수**

주지오 대표

T. 051-255-5675  
E. boan21@korea.com

A.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77, 2층

도서출판 무량수는 20여년 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전문 서적을 지속적으로 출판하면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출간하여 출판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기로운 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힘없이 할 것입니다.

**북치는소녀**

이신영 대표

T. 010-2371-1925  
E. wnqkfrkr1821@naver.com

A. 부산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7번길 6-3 명인빌라 501호

북치는소녀는 보다 더 넓은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책을 출판하려고 부산에서 시작된 1인출판사입니다.

**비온후**

김철진 대표

T. 051-645-4115  
E. beonwhobook@naver.comA. 부산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63번길 16  
W. www.beonwhobook.com

비온후는 책을 생각하고 디자인하는 곳이다. 딱히 장르를 따지지는 않지만 건축, 예술, 인문 등에 관심이 작동한다. 2000년부터 시작해 30여 종의 소소한 출판 작업을 해왔다. 이전 책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느슨하게 운영하고파 여전히 느릿하게 준비 중이다. 그리고 언제나 부산과 부산사람을 이야기하는 출판사로 남고 싶다.

**빨간집**

배은희 대표

T. 070-7309-1947  
E. rhousebooks@gmail.comA.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로 41  
NH정관7단지 701동 809호

빨간집은 이전 부산의 문화예술잡지를 만들던 편집팀의 협력으로 2015년 11월에 설립했으며, 현재는 사람, 문화, 예술, 장소를 기록하고 책 만드는 일을 하는 1인 기업으로 자리 잡는 중이다. 사진작가, 예술가, 연구자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기록한 작업들을 현재의 사람들과 공유하고, 후대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산지니**

강수결 대표

T. 051-504-7070  
E. skk7792@naver.com

A.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부산문화콘텐츠클러스 613호

오래된 매를 뜻하는 산지니처럼, 오래 버티며 지속가능한 출판을 꿈꾸는 출판사. 갈수록 힘들어지는 출판환경 속에서 오래 버티고자 하는 바람을 이룸에 담았습니다. 인문사회과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400여 종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지역 출판사로서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출판으로 이어지는 데가 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도서출판 사인텔**

박경숙 대표  
T. 051-245-2337  
E. shine63@nate.com  
A. 부산시 중구 보수대로 44번길14

사인텔은 시, 수필, 아동시화집, 자서전, 동인지, 회보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출간을 하고 있다. 아직 준비 중인 대필자서전과 지역적인 한계는 있지만 여행 작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여행에세이도 시도해 볼 생각이다. 아직은 출판사보다는 기획실에 가깝지만 서서히 업종을 전환 중에 있다.

**서른세개의 계단**

이상민 대표  
T. 070-7538-0929  
E. pathtlight@naver.com  
A. 부산시 범천구 한라시그마 1220호

사색에만 빠진 철학은 삶과의 괴리를 만들고, 현실의 이익에만 눈을 돌린 자기계발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형이상학, 즉 현실에 도움이 되면서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이 서른세개의 계단 출판사의 목표입니다. 계속 좋은 책을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출판 스토리팜(해광)**

조준형 대표  
T. 051-253-0001  
E. mwdangbook@hanmail.net  
A. 부산시 중구 구덕로38, 2층

도서출판 스토리팜은 문학도서 출판 출판사로 시, 에세이, 소설 등 문학 교양도서와 부산의 문화,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도서를 계획 중이다.

**도서출판 신생**

원양희 대표  
T. 010-4211-6201  
E. lapori01@hanmail.net  
A. 부산시 중구 대청로 135번길 5(401호)

2003년도에 설립된 도서출판 전망의 자매출판사이다. 시인과 문학평론가들로 이루어진 사전문예간지 <신생>의 편집위원들의 기획으로 신생시선, 신생비평선, 신생인문총서, 신생학술총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예린원**

진현옥 대표  
T. 051-747-5099  
E. redcomplaza@naver.com  
A.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616호)

예린원은 엔크리에이티브(주)의 출판 브랜드.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종이책과 더불어 모바일 기기에서 리치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랙티브북을 발행하는 기술력을 갖춘 출판사이다. 여행에세이 '지구와 연애하는 법', '레인보우 부산' 등이 출판과 더불어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되어 있다. '레인보우 부산' 앱북은 2014 부산콘텐츠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육일문화사**

이중형 대표  
T. 051)441-5164  
E. book61@hanmail.net  
A. 부산시 중구 북평산길6번길 11

1989년도에 설립된 육일문화사는 시집, 수필집, 소설집, 동인지, 회고록, 기념문집, 논설집 등 다양한 방면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으며, 근년에는 교회의 역사서도 많이 출간하였습니다. 친절과 정성을 다해 좋은 책을 만들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인디페이퍼**

최종인 대표  
T. 010-2308-1530  
E. indiepaper@naver.com  
A. 부산시 남구 수영로 312, 21세기센츄리빌딩 1604호

인디페이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출판의 가능성을 엿보고자 부산에서 시작된 1인출판사다. 특히 지역출판사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미스터리, 추리, 스릴러, SF 등 장르소설을 중심으로 그 외 지역 콘텐츠와 관련된 도서들을 출간하고 있다.

**도서출판 작가마을**

배재도 대표  
T. 051-248-4145  
E. seepoet@hanmail.net  
A. 부산시 중구 대청로141번길 15-1 대륙빌딩 301호

도서출판 작가마을은 지난 30여 년의 출판경험을 살려 지역출판의 한계를 극복, 부산에서도 당당히 기획출판을 해보고자 지난 2002년 8월 출범했다. 그 일환으로 처음부터 서울에 영업소를 개설하고 일산에 물류창고를 대어하는 등 서울지역과 다음없는 영업체계를 구축, 부산에서도 당당하게 기획출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캠난인연**

성종규 대표  
T. 051-581-0213  
E. dall5724@naver.com  
A.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85

캠난인연은 '세상에 꼭 있어야할 가치 있는 책이라면 이익에 구애치 않는다'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고 있는 부산의 출판사이다. 개인의 이야기부터 사회와 교육에 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가 담겨있는 세상에 꼭 필요한 책을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서출판 전망**

서정원 대표  
T. 051-466-2006  
E. w441@chol.com  
A. 부산시 중구 해관로 55(중앙동3가)

199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시집, 소설집, 수필집, 문학비평서 등 문학중심의 서적을 출간하여왔다. 문학서적 이외에도 사회과학을 비롯한 학술서적, 사진집, 번역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특히 1999년도부터 사전문예간지 <신생>을 발간하여 지역문화와 문화의 텃밭을 가꾸어왔다.

**참과학**

성종규 대표  
T. 051-581-0213  
E. dall5724@naver.com  
A.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85

참과학은 전직 과학교사 출신의 대표가 만든 부산에 있는 출판사이다. 과학과 관련된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용서들을 출간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좋은 콘텐츠를 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와 함께 과학과 관련된 외국의 좋은 서적도 번역 출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책읽는저녁**

김남영 대표  
T. 051-293-1247  
E. evening\_reading@naver.com  
A. 부산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294, 202호(동조티파니빌라트)

책읽는저녁 출판사는 2016년 1월에 1인 출판사로 시작했다. 제명에서 알 수 있듯 낮에는 노동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 그들의 내밀한 교양을 위해 존재하고,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 주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책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사상적 궤적들이 분투하고 갈등하는 현장을 담아낼 수 있는 책을 출간할 계획이다.

**도서출판 청옥문학사**

최경식 대표

T. 051-517-6068  
051-728-6068  
E. sik620@hanmail.net  
A.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03-6,  
(금강빌딩b2층)

청옥문학사는 부산에서 문학단체 13년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좋은 책을 만들어 홍보해 주려는 마음으로 동래에 문을 열어 문인들의 시집, 수필집, 소설, 동인지, 문예지를 전문으로 만들어 중앙도서관, 교보문고, 전국대형서점 등에 보급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출판 푸름사**

최장락 대표

T. 051-805-8043  
E. doosooncomm@daum.net  
A.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로35, 302  
(부전동, 삼성빌딩)

도서출판 푸름사는 2009년 5월에 출판등록하여 전문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학 작품, 에세이, 계간 등을 출판하고 있다.

**해광출판사**

조준형 대표

T. 051-253-0001  
E. mwdangbook@hanmail.net  
A. 부산시 중구 구덕로38, 2층

해광출판사는 지역서점인 문우당서점의 자회사로 출발하여, 현재 30여종의 도서를 출간하였다. 지역의 특성인 해양산업을 주제로 하여 관련된 전문도서를 출간하고 있다.

**도서출판 해성**

김성배 대표

T. 051-465-1329  
E. book0485@hanmail.net  
A. 부산시 중구 대청로 137번길 7-1, 3F

<도서출판 해성>은 1989년 설립되어 올해로 29주년을 맞는 부산의 토박이 출판사다. 지역 문인과 부산학 관련 책을 꾸준히 발간하며 부산 출판의 텃밭이 되고자 한다. 지금까지 약 500여종의 책을 발간하였다. 우수도서와 우수콘텐츠를 선보이는 '해성'은 '부산'적이면서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을 책을 꾸준히 발간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해피북미디어**

권경옥 대표

T. 051-555-9684  
E. bookskko@gmail.com  
A. 부산시 동래구 우정춘로68번길 22

해피북미디어는 책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문화, 예술 분야를 주력으로 다양한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김창욱 음악평론가의 『청중의 발견』을 시작으로 강미희 무용가의 『일상의 몸과 소통하기』까지 여섯 권의 예술문화총서를 발간하고, 자연의 가치, 공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 '만원의 행복' 시리즈를 시작하였습니다.

**호랑이출판사**

허주영 대표

T. 010-3139-8883  
E. tigerbooks2014@gmail.com  
A. 부산시 중구 대청로131번길 8-1,  
아성빌딩 401호

호랑이출판사는 일상 속에 가라앉은 이야기를 길어올려 작자와 독자 모두의 존엄을 도모하는 작은 출판사입니다.

**호밀밭**

장현정 대표

T. 070-7701-4675  
E. homilbooks@naver.com  
A.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68,  
희목오피스텔 1209호

호밀밭은 인간과 사회, 지역과 문화예술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매일매일, 세상 모든 것에 감탄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2008년 부산의 광안리 바닷가에서 설립된 이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시대와 소통하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출판, 문화기획 및 콘텐츠, 문화연구, 인문투어 등을 통해 독자와 유쾌한 소통과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You**

박윤희 대표

T. 070-7716-9249  
E. pyh5619@naver.com  
A. 부산시 중구 대청로137번길 11,  
한양빌딩 402호

소요-You는 '훨훨 날아 자유롭게 노닐다'라는 장자의 '逍遙遊'로 인간이 유희할 수 있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꿈꿉니다. 많은 책을 내기보다는 의미있는 책을 내고자 하며, 출판사 대표가 직접 기획, 디자인, 편집을 하고 있다. 주로 지역사회의 현안에 관한 책들을 출판하고 있다.

# 출판사별 신간도서 리스트

장르	책제목	저자 / 역자 / 그림	페이지	가격(원)	출간 연월	출판사
공공작소	■ Fall In Science - 2016 C.O.S 과학동아리 활동집	차유화 외 16인 저음	489	25,000	2017.01.	공공작소
	■ 누구나 할 수 있는 40만원으로 떠나는 일본여행 (전자책)	윤리현 저음	105	3,000	2017.06.	
	■ 대학 합격으로 가는 자기소개서 핵심 공식	최경준 저음	172	10,000	2017.07.	
나나드리	■ 투손이와 총치대야왕	박소영 저음 / 박진셀 그림	40	10,000	2017.11.	나나드리
	■ Inside Out - 2017 C.O.S 과학동아리 활동집	차유화 외 15인 저음	450	25,000	2018.01.	
	■ 영마의 영마: (중국 한지에서 만난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강동원 저음	450	22,000	2018.05.	
	■ 통일수확여행: (해파랑길에서 떠나는 통일)	강동원, 임창호 저음 / 전영현 사진	225	21,000	2017.09.	
	■ 북중점경지역 5000리 길: (그곳에도 사람이 있었네)	강동원 저음	432	21,000	2017.08.	
	■ 통일, 예라 모르겠다: (한류로 만나는 남북청년 통일프로젝트)	강동원, 유정임, 임수진 저음	380	17,000	2017.03.	
	■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보다	강동원 저음	176	15,800	2017.02.	
	■ 길 떠나는 자에게 세상이 보인다 - 길을건다 3	하원준 저음 / 사진	288	15,900	2017.10.	
	■ 한자어원사전 (개정판)	하영삼 저음	1,052	70000	2018.01.	
	■ 100개 한자로 읽는 중국문화	하영삼 저음	346	23,000	2017.03.	
나눔북	■ 노자 도덕경의 요제: 도덕지귀전서	서용명 저음 / 박원숙 옮김	498	23,000	2017.03.	나눔북
	■ 사진으로 떠나는 한자역사기행	하영삼 저음	287	22,000	2018.03.	
	■ 삼자원 한자학	이은부, 하영삼 저음 / 이화영 옮김	535	27,000	2018.02.	
도서출판3	■ 한국역대한자총서(표준 교강 전자책판) 전16권	하영삼, 왕평 외 저음	13,308	990,000	2017.08.	도서출판3
	■ 돈 드릴로: 불인의 네트워크와 치유의 서사	박선정 저음	262	18,000	2018.05.	
	■ 국과 언급	이문택 저음	248	13,000	2017.03.	
	■ 잠정 투명해자는 사나이	이재경 저음	104	10,000	2017.04.	
	■ 변화의 힘	강영환 외 저음	248	13,000	2017.06.	
	■ 연회터거리매의 공연사와 공연미학	김남석, 김문홍, 김 장, 김주연, 이연수 저음	702	50,000	2017.07.	
	■ 멋진 신세계	유병근 외 저음	304	13,000	2017.11.	
	■ 정의화의 아름다운 복수	정의화 저음	404	15,000	2017.11.	
	■ 역척어머님과 그의 자식들	이문택 저음	10	10,000	2017.11.	
	■ 프리세스 붐	박현철 저음	368	18,000	2017.12.	
도서출판 도요	■ 우유부단은 힘이 세다(전자책)	최영철 저음	346	8,000	2017.12.	도서출판 도요
	■ 나나나나 너너너너	정일근 외 저음	232	13,000	2018.06.	
	■ 휴식	신화남	60	10,000	2017.01.	
	■ 그저	김태우	128	13,000	2017.03.	
	■ 그대 있어 행복한 한세상	이병철	122	12,000	2017.04.	
	■ 소망의 트랙	송정민	128	10,000	2017.05.	
	■ 인제나 홀로 사는 자유	유기환	124	12,000	2017.05.	
	■ 폰대가 쓴 이바구	안규권	180	12,000	2017.05.	
	■ 부산의 디자이너 '예술에 혼을 담다' (원로작가 서술대담록) -민병일-	김다희, 최장락 저음	136	20,000	2017.05.	
	■ 부산의 디자이너 '예술에 혼을 담다' (원로작가 서술대담록) -김현언-	김다희, 최장락 저음	136	20,000	2017.05.	
■ '디자인-출산장려를 말한다' (부산국제디자인제 작품집)	최장락 저음	152	20,000	2017.05.		
두손컴	■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송다인 저음	156	12,000	2017.06.	두손컴
	■ 전원 속으로 풍경에 들다	이경호 저음	124	12,000	2017.06.	
	■ 목간(休庵)을 읽다	한경동 저음	136	10,000	2017.06.	
	■ 맹광현 허수아비의 사색	권혁중 저음	128	10,000	2017.07.	
	■ 하정(眞正)	김인권 저음	128	12,000	2017.09.	
	■ 부산국제사진제 작품집	백성록 저음	152	30,000	2017.09.	
	■ 허무를 듣다	김순자 저음	128	12,000	2017.10.	
	■ 별뿔처럼 오신 당신	노경자 저음	204	10,000	2017.10.	
	■ 바람이 불면 물결 반짝이더라	김영순 저음	282	12,000	2017.11.	
	■ 오늘 이후의 길을 묻다	이재우 저음	124	12,000	2017.11.	
■ 그 날 이후	노일미 저음	112	7,000	2017.12.		
■ 명상 이후 풍경으로 것들다	강기성 저음	124	12,000	2017.12.		
■ 파도 타는 갈매기	김연숙 저음	104	10,000	2017.12.		
■ 농부와 시인	배갑철 저음	208	12,000	2018.01.		

■ 시 ■ 소설 및 에세이 ■ 아동 ■ 인문 사회자연 ■ 실용 ■ 기타

장르	책제목	저자 / 역자 / 그림	페이지	가격(원)	출간 연월	출판사
두손컴	■ 구속사와 히브리어 (부제: 초보를 떠나서 정성함으로 나아가자)	김인규 저음	580	20,000	2018.02.	두손컴
	■ 청산따라 인연	김만수 저음	112	10,000	2018.03.	
	■ 짐으로 가는 길	박복남 저음	144	10,000	2018.03.	
	■ 연분홍 아가씨(離歌集)	최원철 저음	278	15,000	2018.04.	
	■ 동행과 순리의 미학	현형수 저음	124	12,000	2018.04.	
	■ 적도제	이상열 저음	134	15,000	2018.04.	
	■ 서해특정해역	이상열 저음	192	15,000	2018.04.	
	■ 부산의 디자인문화 '예술에 혼을 담다' (원로작가 서술대담록) -김봉진-	김다희, 최장락 저음	88	20,000	2018.06.	
	■ '디자인-인연을 말한다' (부산국제디자인제 작품집)	최장락 저음	156	20,000	2018.06.	
	■ 지금도 책과 연애중	천성호 저음	288	13,500	2017.06.	
리딩소년	■ 주역 삼매경에 빠지다	이해수 저음	610	30,000	2017.02.	리딩소년
	■ 비상	최문정 저음	216	12,000	2018.03.	
	■ 한자의 비밀	조옥구 저음	296	20,000	2017.11.	
	■ 부산, 영화로 이야기하다	김이석 저음	238	16,000	2017.10.	
	■ 청춘, 부산에 살다	김가이외 13명 저음	191	14,000	2017.10.	
	■ 부산 원도에서 사람을 만나다	이수진 저음	224	15,000	2017.02.	
	■ 한밤의 아이스크림 트럭	서진 저음 / 김대홍 그림	144	15,000	2017.09.	
	■ 나를 찾아 떠나는 부산 순례길	박창희 저음	300	1,6000	2017.12.	
	■ 소설로 찾아가는 그날들	귀를 귀울이면 아이들 저음	336	12,000	2018.02.	
	■ 조선기노노	김승태 저음	222	15,000	2017.11.	
비운후	■ 청사포에 해녀가 산다	배은희, 최봉기 저음	221	15,000	2017.10.	비운후
	■ 이명원 가족의 28일간 유럽여행	이명원 , 권현미, 이영주, 이동주 저음	265	15,000	2018.03.	
	■ 책 쓰는 사람들: 부산 출판 이야기	지역출판연구소 B-LAB 27강사외 23명 저음	193	8,000	2018.03.	
	■ 나는 말이 좋아서 일합니다: 고 박경근-이현준 열사투쟁 백서	고 박경근-이현준 열사 투쟁 백서발간위원회 저음	393	18,000	2018.05.	
	■ 계급 이해하기	예리 올린 라이트 저음 / 문해림, 권대민 옮김	412	28,000	2017.01.	
	■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말한다	부길만 저음	144	10,000	2017.02.	
	■ 동중국해 문화권의 민가	윤일이 저음	292	25,000	2017.02.	
	■ 중용, 어름림의 길	정천구 저음	340	23,000	2017.02.	
	■ 생을 버티게 하는 문장들: 박두규 산문집	박두규 저음	220	13,000	2017.03.	
	■ 발트3국의 언어와 근대문학	이상근, 서진석 저음	296	20,000	2017.03.	
빨간집	■ 파미르의 밤: 21세기 중국 최고 시인의 절창	침평 외 7인 저음 / 김태만 옮김	224	15,000	2017.03.	빨간집
	■ 그 사람의 품격: 화가 김춘자 산문집	김춘자 저음 / 김춘자 그림	208	14,800	2017.03.	
	■ 문학을 탐하다	최학림 저음	304	18,000	2017.04.	
	■ 초월명상과 기수련	김노환 저음	142	12,000	2017.04.	
	■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후지타 히사카즈 저음 / 박배근 옮김	262	18,000	2017.04.	
	■ 사할린 1	이규정 저음	352	16,000	2017.05.	
	■ 사할린 2	이규정 저음	356	16,000	2017.05.	
	■ 사할린 3	이규정 저음	356	16,000	2017.05.	
	■ 영화로 떠나는 동아시아	백태현 저음	270	18,000	2017.06.	
	■ 비즈니스 일본어에서 일본어의 비즈니스 인턴이션으로	장규필 저음	192	23,000	2017.06.	
산사니	■ 관학편	장지동 저음 / 송인재 옮김	196	18,000	2017.06.	산사니
	■ 뼈뺀 책읽기(안건우 서평집)	안건우 저음	280	15,000	2017.06.	
	■ 마블라 엘리온 무역	서성철 저음	304	25,000	2017.06.	
	■ 라틴아메리카 혹은 만들기	차경미 저음	210	17,000	2017.06.	
	■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	스티브 크로셔 저음 / 문해림 옮김	184	19,800	2017.07.	
	■ 폭식광대	권 리 저음	176	12,000	2017.07.	
	■ 맨발의 기억력	윤현주 저음	149	10,000	2017.07.	
	■ 휴사심과 불교	도 응 저음	312	18,000	2017.09.	
	■ 천두수 사상선집	천두수 저음 / 심혜영 옮김	578	38,000	2017.10.	
	■ 당당한 인생: 죽음을 배우다	이기숙 저음	262	15,000	2017.09.	
■ 히말리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이상배 저음	271	17,000	2017.09.		



장르	책제목	저자 / 역자 / 그림	페이지	가격(원)	출간 연월	출판사
인문	■ 붉은 폐하 김일석 사침	김일석 지음	180	12,000	2017.09.	산지니
	■ 지리산 아 사랑아	윤주옥 지음	260	15,000	2017.10.	
	■ 유마도: 조선통사사 변박 버드나무 아래 발을 그리다	강남주 지음	264	13,800	2017.10.	
	■ 지함의 도시, 타이베이를 걷다	왕조홍 외 지음 / 박규환, 한철민 옮김	306	20,000	2017.10.	
	■ 봄 공	조함미 지음	152	10,000	2017.11.	
	■ 이나스프리, 그 이르지 못한 꿈: 김원희 산문집	김원희 지음	248	13,000	2017.11.	
	■ 명랑한 외출: 김민혜 소설집	김민혜 지음	238	13,000	2017.11.	
	■ 재미있는 사찰 이야기	한정갑 지음	272	18,000	2017.11.	
	■ 맥스, 영화를 스타일링하다	진경숙 지음	304	19,800	2017.11.	
	■ 500퍼센트와 자기만의 방: 정문숙 수필집	정문숙 지음	214	13,000	2017.12.	
인문	■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김영진 지음	376	25,000	2017.12.	산지니
	■ 우리들, 김: 황은석 소설집	황은석 지음	240	13,000	2017.12.	
	■ 구텐탁, 동백 아가씨: 정우연 산문집	정우연 지음	260	13,000	2017.12.	
	■ 아이기를 걷다: 소설 속을 걸어 부상을 보다	조갑상 지음	304	16,000	2017.12.	
	■ KNOTS: Depression	CSLC(라깅과 임상 연구센터) 지음	192	20,000	2017.12.	
	■ 류스페이 사상선집	류스페이 지음 / 도중만 옮김	370	32,000	2017.12.	
	■ 공자와 소크라테스 : 동서 정치사상의 기원	이병훈 지음	354	25,000	2018.03.	
	■ The Wonderful Story Club	박신지 지음	150	13,000	2018.02.	
	■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박영미 지음	226	15,000	2018.02.	
	■ 산골에서 혁명을: 박호연 에세이	박호연 지음	240	14,800	2018.02.	
인문	■ 지리산둘레길 그림편지	이상윤 지음 / 이호신 그림	256	20,000	2018.02.	산지니
	■ 영마 사용 설명서	도란 크로닌 지음 / 강도희 옮김 / 로라 코넬 그림	56	16,800	2018.03.	
	■ 선택: 진보로 부상을 새롭게 디자인하자	현정길 지음	244	15,000	2018.03.	
	■ 대학, 정치로 배우다	정천구 지음	420	30,000	2018.04.	
	■ 눈이, 그 이상의 정치	정철구 지음	640	35,000	2018.04.	
	■ 나는 장성태입니다: 정광모 소설집	정광모 지음	224	14,000	2018.05.	
	■ 거기서, 도란도란: 부산 구석구석, 이상선 특집	이상선 지음	240	14,000	2018.04.	
	■ 독일 헌법학의 원천	카를 슈미트 외 지음 / 김효진 옮김	1184	80,000	2018.04.	
	■ 어떻게 웃고 살아도 되나: 조해원 산문집	조해원 지음	256	15,000	2018.05.	
	■ 루쉰과 동아시아 근대	서광덕 지음	379	28,000	2018.06.	
인문	■ 생각하는 사람들: 정영선 정평소설	정영선 지음	280	14,000	2018.05.	산지니
	■ 깨달음	김중의 지음	304	25,000	2018.05.	
	■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마르셀로 무스 지음 / 강성훈, 문해림 옮김	236	20,000	2018.05.	
	■ 습지 그림일기	박은경 지음 / 그림	176	16,000	2018.06.	
	■ 슬로시티	김종욱 지음	132	12,000	2018.06.	
	■ 동네 한책방에서 이만 일리치를 읽다	윤성근 지음	256	15,000	2018.06.	
	■ 중국 경제법의 이해	김종우 지음	552	35,000	2018.06.	
	■ 근현대 중국 이상사회론	이연도 지음	320	23,000	2018.06.	
	■ 너럭바위 꽃잎편지	반석초등학교 아이들 지음	212	10,000	2017.01.	
	■ 달도 밝다 보름달이거든	안경덕 지음	248	13,000	2017.10.	
인문	■ 황량산 편지	김형길 지음	248	12,000	2017.11.	산지니
	■ 아직도 골목길에 그가 서 있다.	권은성 지음	226	11,000	2018.01.	
	■ 너럭바위 꽃잎편지-2	반석초등학교 아이들 지음	192	10,000	2018.01.	
	■ 임오물엔1	네빌고다드 지음 / 이상민 옮김	288	13,500	2017.12.	
	■ 꽃말은 흙이 되어	정미린 지음	142	11,000	2017.11.	
	■ 씨락은 향기 날 때 새봄이 온다	신기용 지음	120	13,000	2018.02.	
	■ 세계지도(형장)	편집부 지음	1면짜	7,000	2018.04.	
	■ 바람의 묘비명	박준홍 지음	129	11,000	2018.06.	
	■ 현대소설의 역사와식과 기억투쟁	황국영 지음	360	15,000	2018.01.	
	■ 유목의 피	김희정 지음	120	9,000	2017.12.	
인문	■ 분홍의 그늘	김형엽 지음	120	9,000	2017.07.	산지니

장르	책제목	저자 / 역자 / 그림	페이지	가격(원)	출간 연월	출판사
인문	■ 참, 불다	주병욱 지음	112	9,000	2017.06.	도서출판 선형
	■ 더 블루	이윤길 지음	112	9,000	2017.06.	
	■ 유전자감식과 범성리학	리처드 리 지음 / 전병원 옮김	541	39,000	2017.01.	
	■ 바다를 떠난 섬	천병태 지음	94	10,000	2017.07.	
	■ 2016, 2017 사진기부 부산시민운동 광장	진현옥, 진상규, 이병철 지음	387	29,000	2017.12.	
	■ 오리 공들의 춤	장덕영 지음	288	12,000	2017.10.	
	■ 아쟁의 땅 아프리카	강중구 지음	272	17,000	2017.08.	
	■ 비엔나 호텔외 야간 배달부	임은주 지음	120	11,000	2017.11.	
	■ 시간 망명자	김주영 지음	392	13,000	2017.01.	
	■ 산복도로 이바구	신민수 지음	396	15,000	2017.06.	
인문	■ 양악의 게르니카	허라다 마하 지음 / 김완 옮김	444	15,000	2017.09.	이탈리아 리브라리아
	■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의 독사연애	다치바나 아키라 지음 / 이진야 옮김	332	15,000	2018.01.	
	■ 사라진 그림자(상)	심 우 지음	408	11,000	2018.03.	
	■ 사라진 그림자(하)	심 우 지음	388	11,000	2018.03.	
	■ 오토바이로 모기를 잡아라	김정렬 지음	296	15,000	2018.04.	
	■ 오늘은 일지도 않고	허라다 마하 지음 / 김완 옮김	360	15,000	2018.06.	
	■ 무지경	반시연 지음	408	13,000	2018.06.	
	■ 귀농 귀촌 귀산촌 김잡이	이은호 지음	244	13,000	2017.05.	
	■ 꽃도 물방울을 낮기름 한다	유병근 지음	104	10,000	2017.07.	
	■ 달이 두 번 울기 전에	설정설 지음	384	13,000	2017.04.	
인문	■ 또 다른 소설	배운정 지음	116	9,000	2017.07.	작가마을
	■ 아무리 잊으려 해도	노유정 지음	102	9,000	2017.07.	
	■ 침류장편	김광자 지음	142	10,000	2017.08.	
	■ 창작회독집	제35회 부산연극제 회독집	400	20,000	2017.09.	
	■ 금청산 그리고 중앙동	조성순 지음	128	10,000	2017.06.	
	■ 가문비나무 숲속으로 걸어갔을까	김성희 지음	120	9,000	2017.10.	
	■ 준비	최연숙 지음	128	10,000	2017.09.	
	■ 아오 동동	유병근 지음	226	12,000	2017.10.	
	■ 강에게 고향을 묻다	안영순 지음	220	13,000	2017.10.	
	■ 그 후로 오랫동안	최봉섭 지음	108	10,000	2017.09.	
인문	■ 꽃물 든 말을 보며	이성호 지음	128	10,000	2017.09.	작가마을
	■ 그냥 표류하다	라성자 지음	170	12,000	2017.10.	
	■ 사유의 향기	류선희 지음	112	9,000	2017.09.	
	■ 가을 한 폭	남경숙 지음	112	9,000	2017.12.	
	■ 마장선	송 진 지음	244	12,000	2017.12.	
	■ 그리움을 품은 바다	이복심 지음	112	9,000	2017.11.	
	■ 눈 없는 목동이 소를 몰다(보우스님 범문시집)	보우스님 지음	152	10,000	2017.12.	
	■ 날개 툰다	문인선 지음	136	10,000	2017.12.	
	■ 숨	박 솔 지음	136	10,000	2017.12.	
	■ 천사의 도시, 그리고 눈의 나라	양왕용 지음	118	12,000	2017.12.	
인문	■ 노을 울음	김태수 지음	136	10,000	2017.12.	평년연
	■ 비꽃을 보다	김덕조 지음	224	12,000	2018.01.	
	■ 들꽃처럼 못벌처럼	최만공 지음	144	10,000	2018.02.	
	■ 그림자를 읽는다	최인원 지음	96	9,000	2018.05.	
	■ 참 소중한 당신	최일만 지음	160	12,000	2018.05.	
	■ 하양의 신비	선영자 지음	152	10,000	2018.05.	
	■ 흑시 시인시집니까	신옥진 지음	100	7,000	2018.04.	
	■ 바늘 끝 아성	변 송 지음	126	12,000	2018.05.	
	■ 손의 온기	윤연리 지음	124	12,000	2018.05.	
	■ 학교공화국	김철홍 지음	326	12,000	2017.11.	
인문	■ 길가에서 프로젝트	강성민 지음	232	13,000	2017.12.	도서출판 선형

장르	책제목	저자 / 역자 / 그림	페이지	가격(원)	출간 연월	출판사
도서출판 전망	■ 북색 진갈	김서연 지음	232	13,000	2017.12.	도서출판 전망
	■ 공적 공간에서의 사적인 기록	남승우 지음	288	14,000	2017.12.	
	■ 지역문학에서 지역문화 연구로	남승우 지음	272	14,000	2018.01.	
	■ 국경선의 모티프	류현욱 지음	312	13,000	2017.11.	
	■ 나무는 불꽃이다	이나영 지음	168	9,000	2017.03.	
	■ 고독한 말들	고현철 교수 추모사업회 지음	256	15,000	2017.08.	
	■ 우울 속에서 세상 보기	권미숙 지음	152	10,000	2017.12.	
	■ 달의 귀환	김용숙 지음 / 김영봉 사진	248	12,000	2017.10.	
	■ 제주도의 흙이 된다는 것	김창생 지음 / 양준수 옮김	264	14,000	2018.04.	
	■ 날마다 바람이 된다	김홍규 지음	144	9,000	2017.10.	
도서출판 전망	■ 자작나무 숲의 사유	김희진 지음	160	9,000	2017.03.	도서출판 전망
	■ 수정계단	노정숙 지음	128	9,000	2017.11.	
	■ 꽃 피네	조기종 외 지음	128	18,000	2017.12.	
	■ 목어 별곡	박승희 지음	168	9,000	2017.05.	
	■ 마트료시카 인형	김지은 지음	168	9,000	2017.06.	
	■ 산다화(유고집)	박철석 지음	128	10,000	2018.01.	
	■ 아름다운 외출	박준덕 지음	160	10,000	2017.08.	
	■ 차차 향기 속으로	송차식 지음	152	9,000	2017.12.	
	■ 구름산 고릴라	신익교 지음	144	9,000	2017.08.	
	■ 그대 가득한 마음의 봄날은	양성빈 지음	120	9,000	2017.09.	
책읽는저녁	■ 아버지의 거울	이산정 지음	144	9,000	2017.09.	책읽는저녁
	■ 투구와 피리	천안배 지음	320	14,000	2017.07.	
	■ 사뵐	최정희 지음	240	13,000	2017.04.	
	■ 마주 보는 그림	허미호 지음	128	9,000	2017.06.	
	■ 바다의 끝	김부상 지음	248	13,000	2018.06.	
	■ 2017 모여서 나누고 어울림 - 2017 대한민국 관학교사 창작실현 교류회 모나올	권홍진 외 10명 지음	64	10,000	2017.12.	
	■ 2017 바람직한 과학을 위한 길 찾기	지구탐험대 지음	84	5,000	2017.12.	
	■ 라스트 사무라이, 2017 TOKYO	김인수 외 15명 지음	172	10,000	2017.10.	
	■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철학	장 보수Zhang Boshu 지음 / 오윤동 옮김	264	18,000	2017.09.	
	■ 길이 열렸다	이종민 지음	120	9,000	2018.04.	
창작과학	■ 영화장화	하스미 시게히코, 구로사와 기요시, 아야마미 신지 지음 / 조영민 옮김	296	18,000	2018.04.	창작과학
	■ 마음의 여백	박연희 지음	133	10,000	2017.03.	
	■ 풀꽃 일기	최춘자 지음	131	12,000	2017.03.	
	■ 용이 된 연어	김병국 지음	199	10,000	2017.06.	
	■ 이화 달빛 사르다	이승숙 지음	195	12,000	2017.08.	
	■ 바람의 아픔	천성례 지음	153	10,000	2017.09.	
	■ 삼정의 꽃	임홍윤 지음	162	10,000	2017.09.	
	■ 엄동이	문영걸 지음	154	10,000	2017.10.	
	■ 나그네 정가장	최경식 지음	121	10,000	2017.12.	
	■ 도정범	이석락 지음	237	10,000	2017.12.	
창작문학사	■ 지리산 반들반	민수호 지음	194	10,000	2018.06.	창작문학사
	■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의 꽃이 피고	정태은 지음	235	10,000	2018.05.	
	■ 혼을 담은 시조항기	심애경 지음	173	12,000	2018.06.	
	■ 우연의 이야기(여덟번째)	정경삼 지음	167	10,000	2018.07.	
	■ 언제나 내 안의 당신	현형수 지음	120	12,000	2017.07.	
	■ 가보자, 신라의 달밤을 두고는 그곳으로	김준성 지음	124	12,000	2017.10.	
	■ 차갑고 깊은 발들음으로	부산시문학사인회 지음	176	8,000	2017.11.	
	■ 이별 보기와 희망 찾기	이채우 지음	122	12,000	2018.05.	
	■ 4.5급 기관사 이론 과 문제	해기사시험연구회 지음	706	31,000	2017.01.	
	■ 표준항해영어	김용주 지음	310	18,000	2017.09.	
도서출판 무름사	■ IMO GUIDE BOOK-IMO 가이드북	채종주 외 지음	447	비매물	2018.12.	도서출판 무름사
	■ 선박기관사면접시험-이론과 문제	강희준, 해기사시험연구회 지음	264	28,000	2018.01.	

장르	책제목	저자 / 역자 / 그림	페이지	가격(원)	출간 연월	출판사
해랑출판사	■ 부산도지도(책자)	189	28,000	2018.01.	해랑출판사	
	■ 4.5급 항해사 이론과 문제	해기사시험연구회 지음	690	33,000		2018.01.
	■ 핵, 어떤 안경!	김해창 외 지음	272	20,000		2017.06.
	■ 별이 열리는 나무	구옥송 외 지음	359	20,000		2017.12.
	■ 빗꽃 날리는 언덕	이상미 지음 / 박민 그림	158	11,000		2017.12.
	■ 지역연극에 죽고 부산연극에 살고	김문홍 지음	301	20,000		2017.12.
	■ 내 짝지 손이	박지현 지음	110	12,000		2017.12.
	■ 할머니의 그 물마중	임신행 지음	110	12,000		2017.12.
	■ 임진왜란 부산 그 길을 걷다	정약수 지음	238	15,000		2017.12.
	■ 지금, 이곳에 희망은 있는가?	남승우 지음	232	15,000		2018.01.
도서출판 해성	■ 왜 성당 다니세요?	구용 지음 / 김수안 그림	127	12,000	2018.03.	도서출판 해성
	■ 범죄의 재구성	곽영달 지음	248	15,000	2017.03.	
	■ 필연	시라, 김노환 지음 / 시라 그림	112	12,000	2017.04.	
	■ 해운대 바다상징: 마을기업 예코예코함동조합, 바다에 빠지다	화덕현 지음	144	10,000	2017.07.	
	■ 촌놈 되기: 신진 시인의 30년 귀촌 생활 비록	신 진 지음	254	15,000	2017.09.	
	■ 노루동: 정형남 소설집	정형남 지음	232	13,000	2017.11.	
	■ 을숙도, 갈대숲을 거닐다: 이상성 르포르주집	이상성 지음	232	13,000	2017.12.	
	■ 플라미오리	후카키 기쿠에 지음 / 광규환, 진효아 옮김	235	15,000	2018.03.	
	■ 내 방구같은 만화	기묘나 지음	204	13,000	2017.01.	
	■ 성매매 안 하는 남자들 1	여성인권지원센터 설립 기획 / 허주영 역임	163	12,000	2018.05.	
해피북 미디어	■ 내 마음속의 난로	봄은별(개정판 출간) 지음	189	12,000	2018.05.	해피북 미디어
	■ 도시, 美를 입히다	티엘앤지니어링, 티엘갤러리 지음	352	18,000	2017.01.	
	■ 달라서 좋은 날에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 지음	208	12,000	2017.02.	
	■ 광경이마를 100년의 율랑: 역사	광경이마예술사립단 지음	214	10,000	2017.03.	
	■ 성경동행: 신약편	강문구 지음	484	18,000	2017.04.	
	■ La Vita e Bella-인생은 아름다워	스카웨이커스 지음	240	20,000	2017.08.	
	■ 다시 루션에게 길을 묻다	김태만 지음	240	18,000	2017.08.	
	■ 중국이란 꼬끼리 다루기	조광수 지음	264	15,000	2017.08.	
	■ 옛 이야기 밤	강경숙 외 4명 지음 / 추추희 그림	132	12,000	2017.09.	
	■ 광경이마를 100년의 율랑: 산업	광경이마예술사립단 지음	272	10,000	2017.10.	
호림이 출판사	■ 별 달 없이 산다 상	김유리 지음 / 배민기 그림	96	7,000	2017.12.	호림이 출판사
	■ 별 달 없이 산다 하	김유리 지음 / 배민기 그림	96	7,000	2017.12.	
	■ 두 여자를 품은 남자 이야기	강동수 외 5명 지음	260	14,000	2017.12.	
	■ 모두의 내력	오선영 지음	276	13,000	2017.12.	
	■ 까꼬막을 오르다 이바구를 만나다	부산문화재단 지음	246	10,000	2017.12.	
	■ 일상에 한 번은 허탈하기를 즐겨라	신한범 지음	252	13,000	2017.12.	
	■ 여행의 재료들(잠시만 이곳에)	오성은 지음	184	13,000	2017.12.	
	■ 조선의 비전우에 호패술	도기현 지음	108	13,000	2017.12.	
	■ 90세,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	정영애 지음	200	13,000	2017.12.	
	■ 간 큰 부산할매, 렌터카로 유럽을 누비다	김유진 지음	214	13,000	2017.12.	
소요-You	■ 망각의 유산	김성용 지음	228	12,000	2017.12.	소요-You
	■ 시네제미니즘	주유신 지음	496	25,000	2017.12.	
	■ 아기나무와 바람	장현정, 홍성기, 배민기 지음	44	8,000	2018.01.	
	■ 네 얘기를 듣고 싶어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 지음	136	12,000	2018.02.	
	■ WELL-OUTING 벨아웃팅	김일철 지음	212	15,000	2018.02.	
	■ 작은 공간 큰 이야기 7	문화매개공간 밤 지음	200	10,000	2018.02.	
	■ 광경이마를 100년의 율랑: 생활	광경이마예술사립단 지음	224	10,000	2018.03.	
	■ 세상 속 복음의 향기	김문구 지음	216	14,000	2018.05.	
	■ 뫼스킨 여자의 역사	클러딘느 사게르 지음 / 김미진 옮김	364	15,800	2018.06.	
	■ 청소년을 위한 시민인성교육 1 <공존>	민주시민교육원 나래한얼 판서	160	12,000	2017.02.	
■ 마게 없는 것, 비가 오다	이승재 지음	128	9,000	2017.04.		
■ 시민의제사전 2018	민주시민교육원 나래한얼 판서	152	13,000	2018.01.		
■ 대금 소리	백승희 지음	224	13,000	2018.05.		

##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 출판시리즈 총서 안내

부산문화재단에서는 부산에 숨어있는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거리를 <부산문화재단 사람·기술·문화 총서 시리즈>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 문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부산다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로 소통하기 위해 지역의 가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간행물로 발간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1권  
2015.



사람을 품다 이야기를 담다  
『부산의 시장』

2권  
2016.



세월을 머금다 숨씨를 담다  
『부산의 점포』

3권  
2016.



생각을 그리다 문화가 되다  
『부산의 만화』

4권  
2017.



까꼬막을 오르다 이바구를 만나다  
『부산의 마을버스』

## 부산문화재단, 독서인문학 활성화 사업 안내

부산문화재단 독서인문학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 제 1회 세계인문학 포럼 참여 (2011년)를 계기로 시작되어, 2014년부터는 독서인문학 동아리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인문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독서인문학 생태계 선순환>을 목표로 동아리 지원 뿐 만아니라 독서·인문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독서 인문학 동아리 지원

- 2014년 독서인문학 동아리 16개 단체 선정
- 2015년 독서인문학 동아리 16개 단체 선정
- 2016년 독서인문학 동아리 15개 단체 선정
- 2017년 독서인문학 동아리 30개 단체 선정
- 2018년 독서인문학 동아리 10개 단체 선정

### 가을독서 문화축제 주관

- 2016년 가을독서문화축제 진행  
[일시: 2016. 10. 15.(토) ~ 16.(일) 장소: 부산교육대학교]
- 2017년 가을독서문화축제 진행  
[일시: 2017. 09. 02.(토) ~ 03.(일) 장소: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놀이마루]
- 2018년 가을독서문화축제 진행  
[일시: 2018. 09. 08.(토) ~ 09.(일) 장소: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놀이마루]

### 2018년 독서 인문학 활성화 사업 현황

- 독서인문학 동아리 지원
- [출판사]「부산 출판사 신간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 [서 점] Book Talk 지원, 독립서점 지도 제작
- [인문 단체] 환경, 교육, 예술, 도시, 공동체 관련 강연, 포럼 등 지원:  
<도시의 재구성> 1회~ 5회 진행
- [정책 포럼]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포럼

# Bean이란?

Bean은 Busan, Education, Arts, Network의 조합어로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애칭입니다.  
넝쿨식물 "콩" 처럼 무성한 부산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간의 **협동성**, 동화 (재크와 콩나물)처럼 사람들의  
무한 상상력을 이끌어 올리는 **창의성**, 식물의 열매이자 다시금 하나의 씨앗으로 끊임없이 생성되는 **생명성**은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Bean의 정신입니다.

발행인 유종목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일 2018. 8.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등록번호 2018-14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홈페이지 [www.bscf.or.kr](http://www.bscf.or.kr)

전화 051-745-7284

이메일 [www.mia6751@bscf.or.kr](mailto:www.mia6751@bscf.or.kr)

제작 IP  
인디  
퍼미트

주관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최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2018부산문화재단

- 『부산 출판사 신간도서』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http://www.bscf.or.kr)) : 자료마당> 부산출판도서]
- 『부산 출판사 신간도서』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재)부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8 부산문화재단 인종캠페인



부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재)부산문화재단 독서인문학 활성화 사업

- 『부산 출판사 신간도서』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http://www.bscf.or.kr)) : 자료마당> 부산출판도서]